진리 평화 창조

외대학보

발행인 이강혁
편집인 겸 주간 강덕수
편집장 박재철
외대신문사 ☎962-7128, 961-4151
외대학보 ☎961-4152, 961-4183(FAX겸용)
학생기자실 959-6574, 0335-30-4112
130-791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 270-1
449-791 경기도 용인군 모현면 왕산리 산89
인쇄인 김상영

창간 1955년 4월11일 [주간]
등록번호제 다253호

THE OE DAE HAGBO

제612호 1993년 9월 21일 (화)
1958년 3월 27일 제3종 우편물(가)급인가

총장 눈에 비친 학교모습

"내 생각엔 별 문제없다"

이강혁 총장

이강혁 총장은 이철훈 총학생회장에 대한 징계철회 의사가 없으며 용인캠퍼스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총장은 지난 16일(목), 본보 기자와 가진 대담에서 "이철훈군의 징계 사유와 절차는 타당하므로 철회는 옳지 않으며 해제는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용인캠퍼스 김덕원 총학생회장도 이총장을 방문, 14일(화) 대학당국에 전달한 '학교 발전을 위한 공개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으나 이총장은 "질의서는 받지 못했으며 모든 문제가 잘 풀려가고 있는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김덕원(서학·영어4)군은 "용인캠퍼스 업무를 관장하는 이창복 부총장이 직무수행을 방기한 결과로밖에 볼 수 없다"며 앞으로는 총장과 직접 만나 사안을 풀어나가겠다고 밝혔다. 본보 기자와 용인캠퍼스 총학생회장과의 대담 내용을 종합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총학생회장 징계 철회 의사 없어

—서울캠퍼스에서 제기되고 있는 이철훈 총학생회장에 대한 징계를 철회할 용의는 없는가?

이강혁 총장(이) : 학생들이 이철훈군의 미등록 제적 우려와 함께 이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기자가 쓴 '징계철회'라는 표현은 잘못된 것이다. 철회라는 말은 징계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무효로 할 때 쓰는 말이다. 그러나 이철훈군의 징계는 그 징계 사유와 절차가 명확하다. 따라서 징계때문에 불이익이 있다면 '징계해제 청원서'를 첨부, 해제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문제를 협상하고 있는 학생처장에게 징계도 교육인만큼 그 관점으로 해결하라고 당부한 바 있다.

현행 총장 선출제도 문제점 못느껴

—교수협의회를 중심으로 직선총장 선출제 도입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있는데…

이 : 교수들 일부에서 논의되는 것 아니냐. 일정이 바빠 정신없이 살았다. 깊이 있게 생각하지 못했다.

—지금처럼 재단이 일방적으로 임명하는 제도가 좋다는 것으로 판단해도 되는가

이 : 현행 제도에서 무엇이 문제인 지 모르겠다. 문제점으로 거론되는 것이 있는냐?

—현행 제도의 문제는 총장님께서 더 잘 알고 있지 않느냐

이 : 직선제에는 일장일단이 있다. 단점으로 교수들이 분열된다. 그에 비해 장점으로는 총장이 되었을 경우의 공약을 발표하는 정도라고 생각한다.

—올해 상반기까지 구성키로 한 의대설립추진위원회등 의대설립 문제가 소극적인것 같은데

이 : 의대설립건은 재단에 관계되는 사항이다. 제단은 제원문제를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종합대학인 만큼 의대는 설립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립대 총장들처럼 사립대 총장들도 재산공개를 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는데

이 : 총장뿐 아니라 제단 이사장도 공인이기에 할 필요가 있다.

용인캠퍼스 상황,순조롭다고 보고받았다

김덕원(김) : 대학당국이 92년 조감도를 제시한 후생복지관 건립이 5개년 계획에 빠져있으며 이의 건립을 요구했는데.

이 : 질의서를 미처 받지 못했다. 건설부장을 불러 확인해 보겠다. 전반적으로 관련 부처에서 협의한 후 답변하겠다.

김 : 교통문제가 중차가 이루어지지 않아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고 있던 셔틀버스 마저 매각한 상태인데

이 : 솔직히 신경쓰지 못했다. 셔틀버스가 처분된 사실은 처음 듣는 이야기다.

김 : 대생협 자판기 운영권을 회수하는등 탄압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 : 학교와 학생들이 대화를 통해 '잘 풀린것으로 보고받았다.

김 : 동구어대 단대분리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 : 행정개편 문제는 교수들이 연구중이며 교수들과 학생들이 공유점을 찾지 못한것으로 안다.

김 : 성적으로 학생들을 제적시키는 학사제적은 부당하지 않은가.

이 : 교무처에서 따로 보고가 없었으며 학생들도 큰 이의제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임성은 기자>

총학생회장은 지난 17일(금) 총장과의 면담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였다.

지난 17일(금) 용인캠퍼스에서는 후생복지관 건립에 관한 공청회가 열렸다.

용인 학자투쟁 본격화

용인캠퍼스의 학내 현안(동구어대 단대분리, 대생협 자치권 확보, 후생복지관 건립 등)으로 떠오르는 문제들에 대해 대학당국의 명확한 입장표명이 없어 앞으로 학생들의 반발이 더욱 거세질것으로 보여진다.

지난 14일(화) 총학생회 중앙운영위원회는 이강혁 총장 앞으로 총 4개항에 걸친 '학교발전을 위한 공개질의서'를 보내고 16일(목) 이에 대한 대학당국의 답변을 촉구하며 총장과의 면담을 가졌다. 이날 총장과의 면담을 마친 총학생회장 김덕원(서양·영어 4)군은 17일(금) 어문학관 로비에서 열린 '전체학생 대표자대회'자리에서 "학우들의 정당한 요구들에 대해 공개질의서를 보냈음에도 불구, 학교 최고 책임자가 이에대해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대학당국의 학교발전에 무성의함을 강력히 추궁했다.

한편 대학당국의 자판기 회수 의도에 정면적으로 맞서고 있는 대학생활 협동조합(대생협)은 지난 16일(목) 학생회관 앞에서 '제 22차 복지위원회 결의사항 전면무효및 대생협 자치권 사수를 위한 비상 조합원 총회'를 열었다. 2백여명의 조합원이 참여한 이자리에서 대생협 조합장 황영묵(인문·사학 4)군은 "대생협은 영리추구를 위한 집단이 아니라 학우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조직이다"라며 "학교측이 대생협의 자치권을 인정한다면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통해 공개적으로 검증을 받겠다"고 의견을 밝혔다.

또한 동구어대 학생회는 지난 8일(수) 부총장앞으로 보낸 질의서에 대한 답변이 없자 지난 17일(금) 이에대해 각 과별 비상총회를 개최하고 부총장실 항의방문을 가졌다. 체코어과 학생들의 항의방문 자리에서 이창복 부총장은 "학교에서도 이문제에 대해 성의껏 노력하고 있다"며 학생들의 감정자제를 요구했다. 이에대해 체코어과 학생회장 주창석군은 "지금껏 7년동안 학우들이 동구어과의 발전방안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당국은 항상 학우들의 의견을 묵살했다"며 동구어대 단대분리를 호소했다.

이어 이날 어문학관 로비에서 열린 '후생복지관 건설을 위한 공청회'에서 학생들은 각 학과별로 후생복지관 조감도를 작성·발표하고 이에대한 활발한 논의가 진행됐다.

총학생회는 22일(수), 24일(금) 전체비상학생총회를 개최하여 후생복지관 건립등 4개항에 걸친 현안에 대한 숭리다짐대회를 가지고 24일(금)에는 경기·인천지역 대학 총학생회연합 출범식 참가 출정식을 벌일 예정이다.

<이현재 기자>

빈의자

'정권'안전기획부

▲"제 버릇 남 못준다"는 옛말이 있다. 최근 일어난 안기부의 프락치 공작을 보면서 세삼 이 속담을 떠올리게 된다.

즉, 지난 15일 전국연합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전국연합 상임집행위원이며 경기남부연합 상임공동의장인 김쾌상씨가 91년 4월부터 안기부에 포섭돼 프락치 노릇을 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기간동안 전국연합 정책 즉, 92년도 대선, 범민족대회 등에 관한 정보가 고스란히 안기부의 책상 위에 올려졌다는 것이다.

▲설치될 때부터 지금까지 국가안전기획부는 '정권안전기획부'로서 그 전적은 실로 화려하다.

5.16군사 쿠데타와 함께 '중앙정보부'라는 이름으로 태어나 전두환정권이 들어서면서 현재의 '국가안전기획부'라는 현재의 이름으로 바뀌면서 군사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수많은 프락치 공작을 지행해 왔다. 그리고 소위 '문민정부'라는 지금에 있어서도 김쾌상씨 사건을 통해 안기부의 본질이 폭로가 돼 김영삼정권이 들어서면서 벌인 안기부에 대한 일련의 개혁조치 즉, 안기부장을 학자출신으로 임명하고 그 위상을 낮추며 단순히 해외정보수집의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 국민에 대한 기만임으로 폭로된 것이다.

▲지금에 이러한 프락치 공작은 조금이라도 정부의 눈밖에 나면 어느 곳에서든지 자행되어 왔고 안기부 외에도 기득권을 가진 계층은 이 행위를 그대로 반복해 왔다.

본교 윤석양 이병이 폭로한 보안사의 학계, 종교계, 언론계, 노동계, 학원가에 대한 민간인 사찰 폭로와 본교 서울캠퍼스 현 이철훈 총학생회장이 서양어대 단대장 제임시 제단으로부터 프락치 제안을 받아 이를 폭로한 것이 그것이다.

▲요즘 세간에는 "시대가 변했다"는 말이 자주 오르내리고 있다. 이는 어찌됐든 과거 군사정부가 막을 내리고 민간정부가 들어선 데에서 기인하는 것일 것이다. 그래서 인지 학생들이 거리에서 시위를 하고 노동자가 파업을 하면 "시대에 역행한다"는 말을 많이 한다. 과연 그럴까. 여전히 인권을 유린하는 프락치 공작이 자행되고 군사정권시대에도 없었던 노동자들의 파업에 맞선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는 시대가 과연 '변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러한 개량화 된 시대에는 나무만 보지 않고 숲 전체를 보는, 현상에 매몰되지 않고 본질을 파악하는 국민의 냉철한 판단을 필요로 하는 시대이다.

<김남중>

지면안내

3면 : 서울, 학대운영위원회 개최
6면 : 국회동의 통해 법제화 돼야할 남북합의서
7면 : 우리것을 찾는 외대인—<3>
8면 : 매체비평—엑스포의 보도양상
9면 : 지하철공사 노동조합 노사분규
10면 : 외대 그 작은 이야기—이강혁 총장편

제50기 수습기자 추가모집 제50기 수습기자 추가모집 제50기 수습기자 추가모집 제50기 수습기자 추가모집 제50기 수습기자 추가모집 제50

그냥 지나쳐 버리시겠습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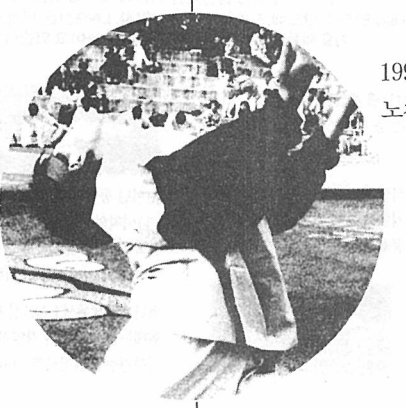
<서울캠퍼스>

정기학생총회

1993년 9월 22일(수)
노천극장

안건
외대발전 5개년 계획
징계·수배 철회
총장선출

제27대 외대사랑 총학생회



<용인캠퍼스>

비상학생총회

1993년 9월 22일(수), 24일(금)
노천극장

22일(수)
2시 : 동구어대 '폭풍제' 개막식(해방광장)
2시30분 : 비상학생 총회(동구어대 단대분리, 후생복지관 건립, 경인총련 출범식, 대생협 탄압규탄)
23일(목)
과별로 부총장실, 총무처, 학생처 항의방문
5시 : 미니세민전(노천극장)
24일(금)
비상학생총회(학자승리 다짐대회 및 경인총련 출범식 출정식)
끝나고 인천대 경인총련 출범식장으로 출발!

제14대 참민주 총학생회

사 설

나그네가 아닌 주인으로 당당히 서자

서울캠퍼스 정기학생총회와 용인캠퍼스 비상학생총회가 내일(22일)로 다가왔다. 2학기 들어 양캠퍼스의 '학지분위기'가 서서히 고양되는 가운데 개최되는 이번 학생총회는 하반기 학원자주화 투쟁의 고조기로 접어드는데 디딤돌 역할을 해야할 것이다.

서울캠퍼스의 경우, '재단투쟁의 재인식과 학생회의 조직적, 대중적 강화'라는 원칙을 틀어쥐고 구체적인 사업을 시기에 맞게 진행시킨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외대발전 중장기 계획의 수립과 총장선출'에 관한 여러가지 작업이 필요하다. 이번에 발표한 학교측의 '외대발전 5개년 계획'은 양캠퍼스의 특화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지곡동 분캐가 포함되지 않은 것을 볼 때, 미래의 대안이 담긴 장기발전 계획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정도의 내용조차도 고민되지 못한 것이 학생들의 현실적인 수준이다. 이 상황에서 학교측안을 무조건 배격하면서 문제를 풀어갈 수는 없다. 참여를 통해 견제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에 더욱 더 학생들의 힘과 지혜가 필요하다. 학생회의 뿌리 역할을 하는 과학생회에서부터 지키과의 내용을 고민하면서 요구안을 내놓아야 한다.

용인캠퍼스 역시 이번주부터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교통문제나 대생협 문제, 동구어대 단대 분리 등을 이제는 더 이상 미적미적한 상태로 넘겨둘 수는 없는 것이다. 교통이 상당히 불편하다는 것을 우리는 생활속에서 겪어서 알 수 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수 학생들이 단합된 목소리를 내야하는 것이다. 학생들의 지지권을 제한하려는 학교당국의 모습을 보여주는 대생협문제 역시 관찰자의 입장으로 일관할 수 없다. '학교의 나그네가 아니라 주인'이라는 생각으로 무너져가는 터전을 지켜야 한다. 그런데 자신의 가장 절박한 요구이면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방관한다면 올바른 삶을 사는 사람의 자세는 아닐 것이다.

이 사항들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지난 정기총회때 모인 3백여명으로는 안된다. 단순히 인원수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참가한 사람들 한사람 한사람이 학교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주체적으로 참가해야 한다.

경희대에서 학원자주화 싸움을 할 때 우리는 얼마나 관심을 가질 수 있는가. 경희대학생들만이 가장 열성적으로 거기에 대해 관심을 보이고 대응을 한다. 마찬가지다. 주인된 자세로 우리의 문제에 대처해야지만이 해결의 열쇠를 찾을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할 수 있는 것이다.

감나무 아래서 감이 떨어지길 기다릴 수 만은 없는 것이 아닌가. '성과'는 몇몇의 간부만이 만드는 것이 아니다. 아니, 이루어질 수가 없다. 압도적 다수의 단결된 지세와 실천이 없이는 '합의서'를 지킬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10월달 본격적인 외대발전운동의 포문을 여는 학생총회를 목적의식을 가지고 참가하는 것은 본교생이라면 지녀야할 최소한의 의무인 것이다.

제 2기 모니터 요원 모집

본보에서는 매주 발행되는 신문을 평가하고 각 과나 단대의 소식을 전달해주는 모니터요원을 모집합니다. 평소 학보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학생회관 2층 기자실로 오세요.

<여론부>

흡산의 소리

짧지만 깊은 이야기

글은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닙니다. 직접 피부로 느껴야만 진정으로 우러나오게 됩니다.
외대인이 함께 공감하고픈 이야기를 짧게나마 적어 보세요. 여러분의 참다운 목소리를 외대학보는 귀기울입니다. 한번 펜을 들고 써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외대학보 '흡산의 소리'의 진정한 주인인것을 잊지마세요.

학교측은 교육자적 성의 보이기를

21세기 신개척지의 꿈—동구 5개어과의 꿈으로만 머물러야만 할 문제가 아니다. 그것도 학교측의 행정편의주의식 사고방식과 권위주의적 태도에 의해 전문교육을 받고서도 사회에 환원할 수 없도록 차단당하는 것은 교육의 사회성을 일시에 말소하는 것임에 다름아니다.

지난 9월 8일, 동구어대는 정기학생총회를 열어 1학기 단대분리 투쟁을 평가, 2학기 일정공유와 인준을 마치고 이 속에서 체택된 공개 질의서와 1학기동안 작성된 엽서, 그리고 용인캠퍼스 5천 학생의 단대분리 의지를 담은 서명용지를 부총장님께 전달하려고 하였으나 부총장님은 "지금 교무회의 중이니 놓고 가라",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서 가지고 오라"는 등의 말을 하며 받아 주지도 않았다. 7년간 선배들의 노력을 이어받아 이번 9월에는 기필코 단대 학생회의 합법성 쟁취를 통한 동구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을 이루겠다는 동구어대 7백 학생의 의지를 담은 엽서, 학교측이 보여주었던 많은 혼란스런 태도들에 대한 정확한 입장 정리와 단대분리의 의지와 시기 등을 묻는 공개질의서, 용인캠퍼스 발전은 지역학 도입을 통한 특화발전을 이루는 것이고 이것은 단대분리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는 5천 학생의 의지를 담은 단대분리 지지 서명용지를 전달하려는 7백여 학생의 단대분리의 간절한 소망과 5천 학생의 용인캠퍼스 발전을 이루겠다는 애교심을 회의 때문에, 그리고 절차상 문제의 이유로 받아주지 못한다는 것은 분명 교육자적 입장에 서 있어야 할 학교측의 권위주의적 태도와 학생들을 무시한 처사임에 틀림없다.

학교측의 이러한 태도는 이후에 계속적으로 나타났다. 9월 10일 학교측에서 이야기 한 행정적 절차를 밟아 공개질의서를 교무처장에게 전달하였다. 이의 답변은 9월 14일까지 서면으로 해줄 것을 부탁하였으나 약속한 14일이 되었으나 학교측에서는 아무런 답변이 없었고, 단대장님이 부총장님과의 면담에서 학교측은 질의서에 대한 답변준비가 안되었다고 하였으며 다시 16일까지 답변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결과는 예전과 마찬가지로 답변준비가 안되었다는 이유로 답변을 거부하였고 다시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하였다. 같은 날 있었던 총학생회장님, 단대장님, 이강희총장님과의 면담에서도 이전까지 보여왔던 것처럼 문제해결의 적극적 자세가 학교측에서는 없음이 여실히 드러났다. 우리에게는 사활적인 문제를, 학교에서는아직도 그리 심각히 여겨지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 앞에 큰 장애였다.

옛말에 "교육은 농사다"라는 말이 있다. 사람에게 먹거리만를 배움이 중요하다는것을 뜻한다. 그렇다면 한 알의 알곡을 거둬들이는 농부의 마음으로 학교측은 제자들이 손수 지금 제기하고 있는 외대발전의 걸림돌, 행정상의 문제가 제자들의 간절한 소망보다 앞선다는 잘못된 권위주의는 극복되어야 한다.

이대성<서학·루마니아어2>

학교의 주인은 학생, 우리 학생들은 징계한 사실이 없음!

—학생 白—

학교어르신네들은 무기정학, 제단 어르신네들은 제적!
—얼빠이—

좋은 일을 하면 불행해지는 우리나라, 좋은나라.
—S91—

외대발전을 외쳐 제적되면 외대는 발전이 안되겠구나.
—허무주의자—

걱정마세요. 우리들이 있잖아요.
—짐제자 팬—

총장은 하여간 잘 뽑아야 허. 민주총장 우리가 뽑읍시다.
—누렁이—

외대발전 시켜려고 했더니 명예훼손이라니, 이게 뭐여?
—팽—

백지 대자보

주제 : 외대사랑 과 대죄로 징계당한 친구들에게

돈이 뭔지…
—사기꾼—

돈때문에 사람 인생에 오점을 만들다니, 참 어이가 없구먼!
—촌놈—

그러기에 교육자는 아무나 돼서는 안된다니까. 해직교사를 외대로 발령냅시다.
—사대생—

유리창 한장 부쉈다고 정학을 시키냐, 잘물로 드러워서 학교 못다니겠네.
—유리잠수—

제적제도는 제적으로 맞섭시다.
—제적자—

무서워서 이거 뭐 학교다니겠나?
—겁쟁이—

독자만평

좁긴 좁군!

황태윤<법·법학1>

교직원, 본 업무에 충실해야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일이 있다. 나는 그리 오래 살아온 것은 아니겠지만 얼마전 너무도 기가 막힌 일을 보았다.

9월 8일 수요일은 용인캠퍼스에서 2학기 정기학생총회가 있던 날이었다. 그 자리에서는 2학기 사업을 학생들로부터 인준받고 앞으로 자주학원 건설에 함께 힘을 모아나가겠다는 결의를 다지는 학생들의 한마당이어야 했다. 사전 축하 공연이 끝나고 본행사가 시작되어 20분 가량 지났을 때, 부총장님을 비롯한 교수님들이 내빈으로 참석했고 장내 정리가 되면서 행사'진행이 되고 있을 때였다. 갑자기 노천극장 곳곳으로 유인물을 잔뜩 든 교직원 예닐곱 명이 동장하여 학생들 한명한명에게 유인물을 나눠 주었다. 그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아직 받아보지 못해 알고있지 못할 때도 나는 무척이나 어이가 없었다. 3년간 6번의 정기학생총회를 보아왔지만 이렇게 교수, 교직원의 높은(?) 관심을 보지 못했고 그것도 유인물까지 들려가며 그 자리를 준비한 것은 정말 놀라왔다.

유인물 내용은 바로 요즘 용인캠퍼스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대생협에 관한 것이었다. 유인물 내용의 옳고 그름을 가리기 전에 그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일이었다. 학생총회의 자리에서, 그것도 학생회의세계 속에서 의결된 내용에 정면으로 반하는 내용이 직원들에 의해서 뿌려지고 있는 것이었다. 그 시간은 분명히 직원들은 학사행정에 임하고 있어야 할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교무처, 학생처 등 각 부서 직원들은 업무를 방기하면서까지 학생총회 자리로 나와서 유인물을 들리는 것이었다. 그것은 첫째, 업무방기일 뿐 아니라 자기 지위와 위치를 망각한 비상식적 행동이다. 민일 그때 시급한 용무로 관련 직원을 찾아갔던 학생이 있었다면 그는 안타까이 발길을 돌려야 했을 것이다.

학생총회는 중앙운영회의, 학대운영회의를 거쳐 전체 학생들의 인준을 받고 결의를 모으는 학생들의 자리임이 명백하다. 그곳에 참관인 자격으로 교수, 직원이 참여하는 것은 좋지만, 자기의 지위와 역할을 망각하고 그곳에서 행동했던 사람이 있다면 그는 다시금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아야 한다.

김형미<동학·일본어3>

답변합니다

▲지난 608호 '교통문제, 외대인이 함께 풀자'에서 제기했던 과속방지 턱과 주차문제에 대해서는 과손된 과속방지 턱은 보수가 됐고 주차장 문제는 고려중입니다.

▲611호 '학지함의서, 우리가 지켜내자'에서 제기한 117번 회수권 사용 문제는 학교방침은 회수권 사용을 합의를 한 상태입니다.

올바른 술문화, 정착되어야

우리나라 사회에서 대학생의 생활 중에 '술'이라는 것은 그들 곁에서 뗄 수 없는 존재이다. 친구, 동문, 선배와 치열하게 들이키는 한잔의 술에 주체못할 젊은 대학시절의 기쁨과 슬픔을 담으려는 것은 지금도 그러하거니와 선배들도 그러했고 우리의 후배들도 그러할 것이다.

이렇게 대학생활의 한 단면을 차지하는 술을 주제로 우리 대학인의 술문화에 대해 이야기를 할까 한다.

대학가 주변의 술집의 가격이 다른 곳의 가격에 비해 싸다고 할지라도 학생들의 지갑사정으로써는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여름철이 되면서부터 학교내의 잔디밭이나 노천극장에는 옹기종기 모여 술을 사다놓고 마시는 풍경이 점차 눈에 띠게 늘어가고 있다. 이 하나 지세를 놓고 보면 참으로 낭만적이고 경제적인 술문화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외대인이면 몇번쯤 보았을 장면인 술을 먹고 난 뒤의 외대인의 모습과 그 자리를 떠올려 보면 별로 유쾌한 기억을 가지고 있는 이는 없으리라 생각한다.

이리저리 굴러다니는 술병과 과자봉지, 게다가 보이는 곳에 버젓이 게워낸 음식물들은 일종의 혐오감마저 준다. 이런 외대인들은 술자리 이후의 노폐물들을 일일이 주워내며 잔소리를 늘어놓으시는 직원들께 미안해 하는 감정을 가지고나 있는지, 또 이런날 이후 정문에서부터 본관까지 쓰레기통 주위 1미터는 꽉 차있는 쓰레기를 보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묻고 싶다.

외대인은 옛날부터 '신사'라는 칭호를 많이 들어왔다. 모든 일에서 자기가 한, 그리고 할 일에 대해 책임을 져왔다는 이야기일 것이다. 치열하고 아름다워야 할 젊음의 술자리가 타인으로부터 눈살찌푸림을 받는다면 그것은 다시 고민해봐야 할 외대인의 생활문제이다.

정우진<서양·독일어1>

HYUNDAI

우리의 現代 세계의 現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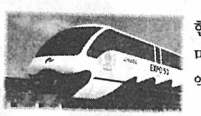
기술로 세계와 승부한다

현대는 끊임없는 도전과 개척정신으로 세계의 일류 기업들과 당당히 승부하기 위해 첨단기술 개발에 매진해 왔습니다.
현대가 만드는 반도체, 자동차, 자기부상열차, LNG선은 세계의 초일류 기술제품으로서 기술한국의 명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최근, 1MD램을 개발한지 불과 4년만에 64MD램 개발에 성공한 것을 비롯, 차세대 반도체 256MD램 개발에 착수하는 등 현대는 세계반도체산업과 정보통신산업에 새로운 강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86년 국내 최초로 미국 자동차 시장에 진출한 이래, 세계시장의 호평을 받은 현대는 순수 우리 기술로 첨단 미래형 스포츠카인 HCD-Ⅱ를 개발, 미래의 자동차 문화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21세기산업을 주도할 정밀화학, 고분자 신소재분야 수요 증대에 부응하기 위해 육성하고 있는 정유·화학부문의 대단위 공장을 건립, 현대는 고부가가치의 제품을 생산하여 보다 풍요로운 삶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현대는 미래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소음과 공해가 없는 미래의 대중교통 수단인 자기부상열차를 개발, 이번 대전 엑스포에 운행함으로써 세계에 우리 기술의 진수를 선보였습니다.

20여년 동안 세계의 선도적 조선업체로서, 세계 최대의 유조선을 비롯하여 530여척의 선박을 건조한 기술을 바탕으로 현대는 최근 선박 기술의 꽃이라 불리는 LNG선을 건조하여 그 명성과 기술력을 다시한번 과시했습니다.

첨단반도체에서 LNG선까지—
현대는 품질개발과 경영혁신을 통해서 보다나은 미래건설에 앞장서겠습니다.

▲現代

서울 총학, 확대운영 위원회 개최

외대발전 운동의 시발, 수배 징계 철회

외대인의 날 개최 · 민주총장 선출 다짐

서울 캠퍼스 총학생회는 간부들에 대한 수배 · 징계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서울 캠퍼스 총학생회는 93년 하반기 정기 확대 운영위원회(이하 확대운위)를 지난 10일(일) 본관 교수회의실에서 열었다. 2학기 총학생회의 핵심기조인 재단투쟁의 제인식과 학생회의 조직적 대중적 강화라는 대명제 하에서 2학기 사업의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였던 이번 확대운위는 정족수인 33명의 운영위원을 조금 웃도는 인원수만이 참가해 아쉬운 점으로 지적됐다.

이날 있었던 '외대인의 날' 행사 사업보고에서는 기획의도를 △모든 외대인들이 화합하고, 외대의 미래상을 그려 나간다 △외대의 지부심을 찾아나가는 자리로 밝힘으로써 2학기 주요 사업중의 하나인 이 행사의 의의를 운영위원들에게 알렸다.

또한, 총학생회에서 준비하는 총장선출투쟁의 원칙을 △후보중심의 논의가 아니라 선출방법의 민주적 강화 △학생회 강화와 교수, 학생, 직원의 3단체가 단결해야 한다 △원칙을 지키고 장기적으로 굳건히 싸울 것이라고 밝힘으로써 총장선출이 2학기 중요 사업임을 천명했다.

문제화되고 있는 수배징계철회에 관하여는 △학생들의 힘으로 해결한다 △학생회를 강화하고 복구한다 △중앙 간부를 지킨다는 원칙을 세우고 교수들과의 연대 모색, 간부 입장 통일을 기초로 두어 징계철회 운동을 벌여 나가기로 다짐했다.

이어 있은 분임토론에서는 학생회의 문제점과 총장선출, 징계철회에 관해 의견들을 개진하고 몇 개의 원칙들을 도출시키는 자리가 되었다.

분임토론 이후 각 단위마다 논의된 사항을 보고하고, 전체 수렴하는 자리가 있었다.

대부분의 운영위원들이 각 단대 정기총회 및 총학생회, 정기총회를 통해 징계철회와 총장선출을 알려 나가며 학생들을 하나의 단결된 힘으로 모으는 데 합의했다.

이후, 수배징계철회의 원칙을 △총장선출 및 5개년 계획에 대한 싸움의 기반이 될 수 있는 핵심 관건은 징계철회투쟁이다 △각 단위 실정에 맞는 방향 모색 등을 결의하고 이후 투쟁을 총학생회와 함께 해 나갈 것을 결의했다.

총학생회의 한 간부는 "이번 확대운위를 통하여 총학생회와 각 단위 학생회가 상호 불신의 벽을 걷어내고 통일한 2학기 목표를 가지게 되었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확대운위의 의의를 밝혔다.

<이승호 기자>

본교 학생취업정보센터 실태점검

조직적 발전으로 취업난 타개해야

요즈음 취업전쟁이라는 현실을 대변하듯 새벽부터 열리는 각종 어학 · 컴퓨터 강좌에는 자리가 남아나지 않는다.

이런 현실에 발맞추어 본교는 올해 3월경 학생처 학생과 산하의 취업보도계 체제를 '학생취업정보센터' (이하 취업센터)로 기구개편하여 총장직속 독립기구로 승격하였다.

올해 이렇게 취업센터로 발족된 데는 작년 합의서중 단기사안에 '취업정보전산화는 93년도 상반기까지 완료하며 효율적인 취업업무를 위하여 학생처의 기구를 93학년도 1학기까지 확대 · 개편한다'는 조항에 기인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취업정보전산화는 작년 11월경 금성정보통신(주)과 계약을 통해 이루어졌다. 따라서 전에는 각 기업에서 보내오는 정보 현황만 알 수 있었으나 지금은 이 전산망을 통해 전체모집요강을 알수 있어 구인정보면에서 확대가 되었다. 또한 예전에는 구인정보만을 얻을 수 있었으나 현재는 각 기업에 대한 그룹별 · 업종별 정보 및 취업준비 · 전략에 관한 정보도 학생들이 얻을 수 있다. 이에 대해 서울캠퍼스 중국어과 취업대표 정해준(4년)군은 "예전에 비해 여러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으나 아직까지 공간문제 등 미흡한 점이 많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렇게 대학당국의 취업대책면에서 전에비해 조직적으로 발전한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까지 취업센터가 풀어야 할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

우선 지금까지 전반적인 취업대책에 있어 전문성이 담보되지 못하고 있다. 최초로 취업센터라는 독립기구를 운영하고 있는 홍익대는 홍보책자발간, 취업대책 정보지 발간, 취업정보자료실 운영 등의 주요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최근의 전체취업률은 93.3%를 기록하고 있다.

이에 반해 본교 취업센터는 위와 같은 사업을 아직 시행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올해 2월 대해 서울캠퍼스 경제학과 취업대표 한상필(4년)군은 "취업센터의 위치를 4학년이 많이 쓰리는 도서관 옆으로 공간은 학장해 옮겨야 한다"며 공간 · 장소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취업추천서 배분과정에 있어 원칙이 없다는 것도 지적되고 있다. 또한 추천서를 받은 각 과에서 제비뽑기나 성적에 의해 순위를 결정하는데 있어 비과학적 측면이 드러난다. 이와 관련해 취업센터에서 각 개인의 장단점과 능력을 기입한 취업진로카드를 작성하고 있으나 아직 모두 작성되지 못한 상태이다.

아울러 전에는 졸업을 하면 소재를 파악할 수 없는 등 여러 이유로 취업면에서 책임을 지지 못했으나 앞으로 이 진로카드를 이용해 졸업 후 진로까지 책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학교가 사회의 구성원을 생산해 내는 의무를 가졌다고 할 때 졸업후 학생들의 진학 · 유학 · 취업을 학교는 방치해서는 안된다. 취업센터뿐만 아니라 졸업준비위원회, 아직까지 꾸려지지 않은 총학생회 차원의 취업대책위원회, 각 과와의 연계를 고려하여 요즈음의 취업난을 타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와함께 더욱 중요한 것은 대학당국의 과감한 투자가 하루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인옥 기자>

서울, 도서관 뒤 휴게실 폐쇄 위기

학교측, 휴게실 대안 제시해야

서울캠퍼스 도서관 뒤쪽 간이 휴게실이 소방도로 공사관계로 인하여 폐쇄될 위험에 처해있어 이에따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동대문 구청은 도서관 뒤쪽의 소방도로 공사를 조만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방도로 공사를 실시하게 되면 손상되는 학교 부지는 간이 휴게실 일부와 테니스장이다. 소방도로는 화재가 났을 때 최소한 소방차가 지나갈 수 있는 만큼의 면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도시계획법상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기존 도서관 뒤 도로가 협소하여 공사가 중단됐다가 이번에 다시 재개하려는 것이다. 소방도로가 개설되면 간이휴게실은 자리가 옮겨질 수 밖에 없다. 건축 구조상 건물유지가 어려워, 이전이 불가피하다고 한다. 학생측은 소방도로 공사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1주일에 1천명이상의 학생들이 사용하는 간이휴게실이 없어지면 학생들이 당장 불편을 겪게 되고, 테니스장 사용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도서관에 주는 소음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학생측은 도로부지 사용으로 인한 보상금 문제와 휴게실에 대한 대안을 대학당국에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대학당국의 5개년 계획안에 따르면 대학 당국은 제1차 다목적 연구동을 10월중으로 착공할 예정이다. 학생측은 연구동신축 비용을 보상금으로 충당하고, 이의 부족분은 학생들의 등록금이 아닌 재단이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문성 담보 · 공간문제 확충 시급

학교측의 과감한 투자 요구돼

서울 총학생회장, 징계철회 없는 등록 거부

학교측, 사과문 작성시 징계 해제 용의

서울캠퍼스 총학생회장 이철훈(서양 · 영어 4)군의 제적여부가 이후 학내 커다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그동안 대학당국은 '괴징계 학생은 징계기간동안 학생으로서의 권리 · 의무가 박탈된다는 징계규정의 해석을 놓고 명확한 입장표명이 없었다. 그러나 지난 2일(목)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징계는 학생신분을 전제로 하기에 학칙상 학칙과 직결되는 사항(등록, 휴학)은 징계규정보다 우선되므로 괴징계학생도 등록, 휴학은 할수 있다'고 결정했다. 또한 징계문제와 관련해 대학당국은 '총학생회장이 사과문을 작성하면 징계를 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을 총학생회측에 전달했다.

이에 대해 이철훈 총학생회장은 "1학기 외대발전투쟁은 정당했다. 사과문은 절대 쓸수 없고 징계철회없는 학교측의 이떠한 정치적 제안도 받아들이지 않겠다"며 징계해제가 아닌 징계철회를 주장했다.

총학생회는 간부들에게 가해진 수배 · 징계 철회를 주장하며 16일(목), 17일(금) 이틀간에 걸쳐 재단사무실과 총장실 항의방문을 가졌다. 이날 항의방문을 진행한 총학생회 정책국장 이상운(상경 · 경영 4)군은 "박승준 전무이사에 대한 항의방문 과정에서 학생처 직원들을 비롯한 20여명의 직원들이 업무를 중단하고 학생들을 막아서고 언론사 기자들의 취재까지 방해했다"며 "그날 밤 학교주변에는 사복경찰로 보이는 60여명의 사람들이 학교주변을 서성거렸다"고 경위를 설명했다.

등록거한인 해당학기 4분의 1선(18일)이 지난 지금 학칙상으로 총학생회장은 미등록 제적 상태이고 이후 대학당국의 내부결정에 따라 확실한 제적여부가 가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대해 교무처 학적과장 한철수씨는 "2, 3일내로 제적확정자 명단을 발표할 것이다"고 밝혔다.

늦어도 교육부 보고시한인 10월9일까지는 결정될 이 문제는 내일(23일) 열리게 될 총학생회 정기학생총회가 제적여부를 결정하는데 큰 관건이 될 전망이다.

노조, 총장 선출 직선제 촉구

학교행정 재단으로 부터 독립요구

본교 노동조합(이하 노조)은 9월20일자 '전 외대인 앞에 드리는 제안서'를 통해 대학에서의 총장 직선제의 의의와 당위성을 바탕으로 범 외대인에게 '민주총장선출을 위한 공동위원회'를 하루속히 구성해야한다고 촉구했다.

노조는 '총장 직선제의 정착화는 학원내부의 민주적 구조를 세우기 위한 일보 전진이며 대학의 자율적 행정을 건제하고 간섭하는 재단으로부터의 탈피를 위한 최소한의 방안이 될 것이다'라며 교수 · 직원 · 학생 3주체 전체의 힘으로만이 민주총장선출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조는 '대학의 생명인 학문 · 사상의 자유를 보장해 주는 대학의 자율성도 전체 구성원의 합의에 의해 선출된 총장만이 전 구성원의 신뢰와 힘을 바탕으로 보장할 수 있는 것이다'며 '총장직선제를 학원에 정착시키고자 노력했던—세종대, 조선대, 고려대, 단국대… … 많은 대학들이 그 어느대학 하나 학원 주체들이 국가 또는 재단권력으로 부터 탄압과 협박을 받지않은 경우가 없었다'고 밝혔다.

용인 학관 누수 심각

근본 대책 강구해야

용인캠퍼스 학생회관 지하로 흘러드는 화장실과 식당의 누수와 관련해 동아리연합회(동연)는 이의 근본적 개선책을 요구하고 있다.

동연 연행예술 분과장 이정훈(서학 · 포어 2)군은 "학생회관 지어진 이후로 비가 많이 오는 날만 되면 지하에 위치한 동아리 방들은 누수와 습기로 심한 불편을 겪어왔다"며 "학교측은 해년마다 미봉책으로 수리를 해왔고 방음벽도 설치했으나 그 효과가 거의 없다"고 주장하고 대학당국의 건설한 행정을 요구했다.

동아리 연합회는 '자치활동 보장과 공간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대학당국의 근본적인 개선 요구안으로 △공기순환 시설 설치로 습기 방지 △대형 환풍기 · 제습기 설치 △실효성 있는 방음벽 설치 △문, 창문 보수 등을 내세우고 있다.

◇동총련 · 용성총련 하반기 대의원대회 개최

동총련 대중에 기반한 일상사업 추진

용성총련 경기동부총련으로 발전적 해체

양캠퍼스 총학생회가 소속되어 있는 동부지구 총학생회연합(동총련)과 용인 · 성남지구 총학생회 연합(용성총련) 대의원대회가 지난 18일(금), 17(목) 각각 한양대와 경원대에서 열렸다.

제6기 동총련 하반기 정기대의원대회는 상반기 대중운동평가 · 총화 그리고 하반기 전망, 과학생회를 중심으로 한 자주적 학생회 운동의 현황과 전망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상반기 평가에서는 간부들의 호트러진 자세와 상층단위와 하층단위의 통일되지 못한 사업진행, 학원자주화 투쟁에 있어서 학교발전운동 차원으로 경제 · 복지문제에만 매몰됐었다는 우편향을 지적했다.

하반기 전망으로는 일상대중사업 내실화, 남북합의서 비준, 국가보안법 철폐, 5 · 6공 청산투쟁을 확정했다. 하반기 학원자주화 투쟁은 교육재정확보를 위한 공동연대투쟁, 일상적인 학교사랑운동, 대학교육살리기 운동 등을 기조로 설정했다.

또한 하반기 중심사업으로 과학생회장 전진대회, 학생의 날을 맞이해서 북한학생들과 함께하는 '경성 · 평양체육대회'개최를 제안했다.

한편, 이번 대의원 대회를 기점으로 용성총련에서 경기동부지구 총학생회 연합으로 확대 · 발전하게된 제7기 용성총련 대의원대회에서는 △상반기 사업평가와 하반기 사업계획 △경기동부총련 강령과 규약 △경기동부총련 건설과 정인총련 건설에 관한 토론과 확정이 이루어졌다.

경기동부총련 건설에 대하여 7기 용성총련 의장 장상수(경원대학교 총학생회장)군은 "동부지구에 존재하는 대학과의 교류와 연대운동을 펴치 경인총련 발전에 기여하고 이지역 타부문 조직과의 연대 강화, 학생들의 공동된 생활 · 학문적 요구를 수렴하고 전국연합 비포함 지역을 포함하여 지역연합을 강화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어떠한 성취도 도전 안에 있다."

도전하지 못할 세계는 없습니다.
패기에 찬 젊음으로 무한한 세계에 도전하십시오.

젊음의 가치는 성취보다도 그것을 향한 도전에 있습니다.
목표자체가 성취라기보다는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에너지가 곧 삶의 성취인 것입니다. 특히 최선을 다해 매진하는 젊음 앞에는 목표보다 더 좋은 결과가 놓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젊음의 패기와 진취적인 열정으로 나아가십시오. 젊음의 무한한 가능성은 바로 그 도전적인 패기에 있습니다.

도전적인 패기를 지닌 젊음은 창조적인 열정에서 남다릅니다.
각자 자기소신과 목표를 지니고 최선을 다하는 도전의현장—
종합건축자재에서 도료, 건설분야까지 미래의 꿈을
일구어 가는 금강·고려는 바로 이런 젊음들이 일구어내는
희망찬 내일이 있습니다.

금강·고려
㈜금강 ㈜고려화학 ㈜금강종합건설

통일이 되면 무엇이 달라지나 —마지막회

통일조국의 교육은 민족대단결의 원칙아래…

편집자가 독자에게

'통일이 되면 무엇이 달라지나'라는 기획은 처음 계획하였을 때부터 많은 우려점을 안고 있었다. '어떻게 통일이후를 지금 예상할 수 있는가?', '많은 변수가 존재하고 있고, 통일방안이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말할 수 없는 부분이다.'라는 등등의 우려점들과 '힘든 작업임에 틀림없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흡수통일이 아닌 연방제통일을 생각하고 있다면.', '많은 이들이 연구를 힘쓰고 하는 부분이다. 이젠 단순히 통일을 아득한 소원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준비를 해가야 할 단계이므로 꼭 해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낙관론에서 고민하다가 기획을 실행에 옮겼다.

그때 우리의 생각은 "비록 통일조국에서 뒤돌아 보았을 때 그 수준이 멸백히 미천하다 할지라도 현재 존재하고 있는, 통일에 대한 갖가지 기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장이 된다면 우리는 소임을 다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었다.

이제 마지막 회를 싣게 되면서 본 시리즈에 대한 평가와 나름대로의 해명을 해보려 한다. 609호의 '정치 · 군사 변화'부터 시작해 '산업경제 변화', '농업경제 변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 · 교육 변화'를 싣게 되었다. 필자와 자료를 찾는 과정에서 알게 된 점은 몇몇 부분을 제외하고는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점이었다. 오히려 흡수통일을 가정하고 있는 정부기관에서 훨씬 더 풍부한 자료와 자본을 바탕으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었다. 나름대로 연구가 진행되는 부분은 '군사 변화', '통일농업'정도였다. 대부분의 글들은 남한과 북한의 현재 실정을 바탕으로 하고 연방제-2체제 1통일국가라는 전제하에 쓰여졌다.

이번호에 싣게되는 '통일이 되면 교육, 사회복지 부분에서는 무엇이 달라지나'라는 부분은 앞서 실었던 '정치', '군사', '경제'부분의 변화에서 파생되는 변화의 내용을 기획했었다. '군사', '경제'변화에서 설명했던 통일이 되었을 때의 절약되는 예산과 경제발달에서 생긴 자본이 '교육 · 사회 복지'부분에 충당될 것이라는 판단, '정치'변화에서 이야기한 국가보안법(국보법) 철폐—사상의 자유 보장 등으로 나타나는 학문의 발달 등에 관한 내용이었다. 6공화국 5년동안만 해도 1천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국보법으로 구속되었고, 바로 지금 국보법으로 구속된 사람만 해도 3백 2십여명에 달한다는 점, 남북 3만여명의 이산가족, 77명의 장기수 분들, 통일조국에서는 이들이 어떠한 생활을 할 수 있을까하는 물음도 포함되어 있었다. 교육에 있어서는 특히 역사 · 지리 등의 한국학 발달 등이 주요 변화부분이라 할 수 있었다.

실릴 예정이었던 위와 같은 내용은 편집자와 필자의 이해착오로 아쉽게도 실리지 못하고 통일조국에서의 교육방향부분에 대한 글이 실리게 되었다. 미숙한 기획물을 끝까지 지켜봐주신 독자여러분께 감사의 마음과 약속한 글을 마무리짓지 못한 미안함을 함께 전하면서 본 시리즈를 마친다 한다.

<편집자>

평양시내에 있는 인민대 학습당 전경 <사진 : 역사비평>

역사 바로잡고 '우리것' 찾는 교육 진행될 터

차이점 인정하면서도 '민족단결'위한 교육

얼마전부터 학계를 비롯하여 일부 단체에서는 '통일한국의 미래상'을 스케치하는 데 많은 시간을 쏟고 있다. 상당히 고무적인 일로 받아들여 진다.

그러나 모든 논의의 출발점이 '이제 사회주의는 망했다', '북한은 비이성적인 집단이다', '북한의 사회제도는 김일성 일인독재를 위한 것이다' 등을 열거하면서 북한의 모든 제도를 한국의 자본주의질서의 틀로 바꾸거나 장점만을 살려야만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통일조국상을 그리는 데 '역지 춘향이'가 많아 문제다. 북한 교육의 특성과 장단점을 한국의 교육에 맞게 변화시켜야 한다는 전제 때문이다. 법과 제도를 논의하는 세미나에서도 이런 사실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다시 말해 1제도 1국가의 통일국가 수립을 전제로 '사회상'을 그리고 있으니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는 묻지 않아도 뻔하다.

중요한 사실은 통일이란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을 먹고 먹히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과 민족의 번영과 이익을 우선하는 민족대단결을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하며 국민적 합의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쌍방의 제도는 당분간 그대로 두고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컨대 95년을 통일원년이라고 한다면, 최소한 남북한 교육자들과 학생들이 적응하는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통일과 동시에 모든 것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하루 아침에 모든 것이 바뀐다면 혼란을 가져올 것이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적응기간은 물론 짧을수록 좋다. 이 적응기간 동안 남북한은 사회제도를 통합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특히 현재 남북 쌍방은 교육제도를 비롯하여 의무교육기간, 교육체계 등이 다르지만 부엌보다도 교육방법에서 근본적인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한국이야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이므로 생략한다. 북은 자신의 사회가 '수령-당-대중의 사회정치적 생명체'에 입각한 사회이며 혈혈적 군중운동이 지배적인 집단주의사회라는 점에서 국가주도형의 사회주의 생활양식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고 있다)

문제는 교육내용이다. 교육관, 교과내용, 교육지도방법 등이 현저하게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적응기간'동안 논의되어야 할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다름아닌 교육내용에 무엇을 담을 것인가로 생각한다.

세계사적인 측면에서나 우리 역사에서나 일대 전환기의 시점에서는 위기와 동시에 기회를 준다. 지금 세계는 문화사적으로 일대 전환점으로 기로에 서 있다. 여기서 우리는 이 기회를 최소비용으로 최대 활용해야 한다.

통일조국의 교육제도의 논의는 신세계질서의 수립기 과정에 있는 문화사적인 보편성 가치의 추구에 충실하되 민족대단결과 민족이 우선하는 사상과 이념이 담기도록 해야 한다. 다시말해 남북의 상호비교를 통해 장점만을 갖추려낸 교육제도가 아니라 한민족 전체에 대한 교육이 어떻게 전개되어가는 것이 한민족 구성원 개개인 뿐 아니라 민족전체에도 바람직하고 인류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인가를 염두에 둔 교육제도를 창안해야 한다. 통일이 되기 때문에 교육제도를 새로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통일이라는 기회를 최소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교육개혁'을 실현해 보자는 발상이 요구된다. 이러한 의식전환은 연방제 국가의 초기단계에서 지역정부의 권한이 강하다는 측면을 염두에 둔 것이다.

통일조국의 교육내용은 민족의 단결을 심화시키는 내용들을 담아야 한다. 우선 역사를 제정비하는 작업부터 시작해야 한다.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는 일이야말로 통일국가의 진정한 모습일 것이다. 나아가 민족의 문화와 '우리 것'을 찾는 일과 바로잡는 일이 중요하다. 둘째는 남북 쌍방이 합의한 내용을 담아야 한다. 국가의 기본이념과 목표 및 방도 등을 담아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남북 쌍방은 서로를 한치의 왜곡됨이 없이 서로를 이해할 수 있고 감싸안을 수 있는 교육내용과 교육지도가 필요하다. 쌍방은 이질적인 체제와 문화 속에서 단절된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무엇이 올바르고, 무엇이 그릇된 것인지를 알지 못한다. 이런 측면을 단시일내에 극복하는 길은 교육밖에 없다. 청소년들은 감수성이 예민할 뿐 아니라 편견없이 소화하는 데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교사의 재교육과 충원의 문제이다. 아무리 교과내용이 풍부하고 통일조국의 미래상을 명확하게 밝혀 놓았어도 그릇되고 편견을 가진 교사가 학생을 지도한다면 그것은 "베고픈 여우에게 고기를 맡겨 놓은 꼴"이 아닐까. '교사는 학생들의 미래를 결정한다'고 한다. 통일조국의 교육은 교사의 손에 달려있다.

일부 논자들은 "갑자기 돌발적 형태의 통일이 이뤄질 것에 대비 공산주의와 주체사상에 침저히 세뇌된 북한주민들의 의식을 계몽해주기 위한 국민교육방안의 수립과 교과서의 편수 공급계획, 교사의 재교육과 충원계획, 교육자원의 확보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통일이란 것이 어느날 갑자기 올 수도 있지만 반드시 돌발적인 것이 아니다. 남북 쌍방은 지난 91년 말 '남북기본합의서'를 합의한 바 있다. 이는 분단 50여년동안 당국간에 공식적으로 합의한 통일강령이다. 이를 바탕으로 하나씩 하나씩 통일한국의 미래상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북한주민들을 계몽하겠다는 것 자체가 바로 어떤 특정 계급의 목적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누가 누구를 계몽한다거나 하는 의식은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 남북 쌍방은 남북기본합의서에서도 밝혔듯이 '나라와 나라사이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라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 찬 행
<한국사회과학연구소 연구원>

통일을 바라보는 사람들

본교 1학년
배말룡양을 만나

"일상생활에서도 통일이 우리들의 얘기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통선대 일을 마치고 한양대 노천극장에서 저랑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로부터 박수와 격려를 받을 때가 가장 기뻤고 하마터면 눈물까지 나올 뻔 했습니다." 범민족대회때의 감동을 이렇게 회상하는 사람은 본교 배말룡(동학 · 아프리카어 1)양이다. 올해 입학한 93학번이지만 통일 선봉대, 농활 등 참여가 활발해 학내에서도 잘 알려진 인물이다. "제가 조금전에 '저랑 같은 생각'이라고 말한 이유는 평소 생활할때 친구들이라해도 통일에 대해선 진지하게 논의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통일의 당위성을 인정하면서도 관심이 그리 많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배양도 통일을 바라는 마음이 남달라서 통선대에 참가했다기 보다는 어디든 빠지지 않으려는 그의 생활태도때문이라고 한다.

배양은 또 학회의 세미나등을 통해서 고등학교 때까지의 교육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았으며 특히 북한에 관해서는 왜곡되고 잘못 알았던 부분이 많았음을 시인하였다. 그녀는 또한 북한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었다고 한다. 예를들면 김일성 주석에 대한 인식이 바뀐 것을 들 수 있다. 만화영화 '똘이장군'에서 돼지로 나왔던 것처럼 과거 인간이라고 취급하고 싶지도 않았는데 알고 보니 우리와 같은 인간이란 걸 알게 됐다고. "고등학교 윤리선생님도 대학다니시면서 이런 사실들을 알고 계셨을텐데 그럴 수 밖에 없었던 지금의 분단현실이 안타깝습니다"라며 덧붙인다.

통일을 언제 가장 바랐느냐고 물었을 때 배양은 약간 당황하는 모습이었다. "그리 대단하게 느껴본 적이 없어서 잘 생각나지 않네요. 감상적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하나 있다면 어릴 때 텔레비전에서 이산가족을 보았을 때였습니다. 정말 하나의 비극이라고 생각했었죠." 그런데 이때 그의 얘기는 북한 사람들은 군사훈련을 받아서 사나우니 통일안되는 것이 나을 수도 있을 거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 당시 얘기가 어려서 잘 모르고 한 말이라며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만 통일이 되면 어디다는 이유로 한민족을 잘 모르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하며 배양은 말을 이었다.

"북쪽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서 많이 놀랐습니다. 통일을 바라는 열기가 대단했어요. 우리라면 그렇게 까지는 못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이 태극기를 흔들며 눈물을 흘릴 때의 모습은 정말 인상깊었습니다. 남한에서는 인공기를 드는 것조차 허가되지 않으니까요." 배양은 80년 입수경대표 평양축전 참가비디오를 본 소감을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으레 고등학교 수학여행이라면 경주를 찾는데 통일이 되면 북한의 의미있는 유적지를 찾아가 봤으면 좋겠어요. 백제, 신라의 정신 뿐 아니라 고구려의 진취적 기상도 좀 본받겠요."라고 하나의 희망사항을 말하였다. 또 결혼하면 신혼여행을 금강산으로 가고 싶다고 한다. 정말로 희망사항이 아닐, 곧 머지 않은 현실이 될 것을 기대해 본다.

<조지훈 기자>

쾌적하고 생산적인 산업사회 창조

金星産電

"미래 자동화사회를 여는 가장 앞선 기술"

금성산전은 종합 산업 전기·전자기술을 바탕으로 미래 자동화사회를 앞서 열어가고 있습니다.

산업용 전기·전자 분야의 세계 초일류 기업을 지향하는 금성산전은 산업 전분야에 걸친 종합 기술력을 바탕으로 21세기 첨단 자동화사회를 앞서 열어가고 있습니다.

■산업자동화분야
●로봇 ●P.L.C ●CNC ●인버터 ●물류자동화시스템
●공정 및 빌딩 자동화시스템 ●보통관제시스템
●전력제어시스템 등 다양한 시스템 엔지니어링

■서비스설비분야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주차설비 ●지게차
●차량관리기기 ●자판기 ●전동공구 등

■전기·전자분야
●초고압설비 ●배전반설비 ●고저압기기 ●변전설비
●제어계측기기 ●광반도체 등

■환경·에너지분야
●상하수처리시스템 ●전기집진기
●자외선살균시스템 등 가종 공해방지설비
●태양광발전시스템 ●열병합발전시스템 ●태양열온수기
●축열기기 등 대체 에너지기기

金星産電部門
●金星産電 ●金星計電
●金星樹電 ●金星아니텔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0(리커금융 트윈타워)
대표전화 : (02) 787-1114

지혜재산권보호 세계속의 한국은 세계속의 기술로부터

미국의 세계패권을 위한 도구, 이-팔 평화협정

외대논단

금 상 문
<본교 아랍어과 강사>

40여년간 적대관계에 있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해방기구(PLO)가 어느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평화협정을 체결하여 세계의 이목을 끌고있다. 왜 그들은 평화협정을 체결할 수 밖에 없었는가 그 전모를 살펴보기로 한다.

1948년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유태 시오니즘에 입각한 이스라엘이 건국된 후, 팔레스타인지역에서 강제 축출된 아랍 팔레스타인인들은 이집트의 가말 압둘 나세르대통령의 적극적인 후원으로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즉 PLO를 1964년 결성하였다. 그 후 팔레스타인인들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이스라엘을 축출하고 팔레스타인국가 건설을 최대 목표로 삼고 이스라엘에 대해 적대심을 불태우며 전투와 투쟁을 계속해 왔으며 이스라엘도 팔레스타인 지역을 고수하고자 최대의 적대심을 품고 줄곧 PLO에 대적하여 왔다.

그러나 이스라엘과 PLO 양측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채 전격적으로 1993년 9월 10일 서로를 상호승인하고, 이후 양측은 9월 13일 미국 워싱톤에서 미 클린턴 대통령의 입회 평화협정에 서명함으로 존립 부정과 적대상태에 일면 종지부를 찍었다. 평화협정에 규정된 팔레스타인 자치계획에 따르면 1994년 1월에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 요르단강 서안 예리코시에서 철수, 향후 5년간 팔레스타인 과도정부가 이스라엘로부터 치안 교육 과세에 관한 권한을 이양받고, 1994년 6월에 팔레스타인 민족의 자치를 주관할 자치위원회 선거실시, 1997년 1월까지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민족의 과도기간 이후에 관한 최종협상 시한을 설정, 최종협상에서 동예루살렘 문제, 팔레스타인 난민문제, 국경문제 등 함의, 1999년 1월에 팔레스타인 민족의 자치기간 종료후 양측 협상안에 따라 팔레스타인 정부가 수립된다는 것이 그 내용이다.

그러나 이스라엘-PLO간의 평화협정 체결이후, 이스라엘측의 강경파와 아랍 팔레스타인계의 강경파 그리고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은 평화협정체결을 반대하고 있다. 더욱이 이슬람 원리주이자들은 미국과 서방을 사탄으로 규정하면서 러시아 여객기를 납치하는 등 과격해지고 있어, 이스라엘-PLO 평화협정은 그 의미가 벌써부터 변질되고 있으며, 이에 평화협정의 장래는 불투명한 상태에 놓여있다.

이러한 상태에 놓여있는 이스라엘-PLO간 평화협정의 정확한 실상을 밝히기 위해서 현국제질서와 걸프전 후 중동지역에 막강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미국과의 관계를 살펴보아야 한다.

냉전후 현재 세계질서는 힘의 단편화와 지역화 추세로 변모되고, 각국의 보호주의정책의 채택으로 국제경제적 갈등이 심화되면서 또 한편으로 국가간 협력을 필요로 하는 양상을 띠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미국은 미국내의 경제사정악화의 불만을 대외로 돌릴 필요성과 세계패권을 위해서는 팔레스타인 문제를 적극 이용할 수 밖에 없었다.

즉 미국은 중동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국가이지만 팔레스타인 문제로 야기된 아랍과 이스라엘 분쟁이 항상 골치였다. 다시말해 이스라엘의 보호와 동시에 아랍산유국의 확보라는 두 이질요소가 전통적으로 미국정책의 딜레마였다. 그래서 미국의 현 클린턴정부는 팔레스타인 문제를 해결해야만 완전히 중동의 패권국가로 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PLO의 화해를 적극 모색했던 것이다. 이것은 국제정치와 국제경제체제에서 어떤 지배적 행위자의 강력한 리더쉽이 확립되고 유지될때 국제적 협력이 원활해진다는 패권적 안정이론에 부합되어 진다. 다시 말해 미국의 클린턴정부는 세계패권을 위해 이스라엘-PLO 평화협정카드를 적극 활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스라엘-PLO 평화협정체결때 이스라엘수상이 보여준 PLO 아라파트 의장을 싫어하는 표정과 태도는 지의로 협정테이블에 참석함이 아니라 미국의 강요나 설득에 의해 마지 못해 협정테이블에 나왔다는 증거라 하겠다.

미국이 중동평화를 위해 이스라엘-PLO 평화협정을 적극 주선하였다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나, 과생적 결과로 미국은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에게 이스라엘 타도 외에 미국과 서방타도, 아라파트 제거라는 명분을 주었다. 한편 걸프전후 입지가 약해진 아라파트로서도 이스라엘과 화해라는 카드로 입지강화의 돌파구를 마련해 보자는 의도였는데, 이것이 미국의 이해관계와 맞아떨어진 것이다. 반면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은 아라파트가 이스라엘과 화해한다는 행위는 이스라엘의 보호자인 미국과 서방에 동조하는 것이고, 특히 이슬람의 중교적 의무를 포기하여 버린 것이라고 비난한다. 따라서 이슬람원리주의자들은 이스라엘과 평화협정을 맺은 PLO 아라파트의장을 불신하고 전체 팔레스타인민족평의회(PNC)의 개최를 요구하고 있다. 한편으로 그들은 평화협정을 적극 주도한 미국과 협정에 지지하는 서방을 악마로 규정하며, 아울러 평화협정을 적극 반대함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다. 이러한 행위들은 서방측이 테러로 명명하는 것과는 달리 그들에게 당연한 종교적 의무인 것이다. 여기서 한가지 짚고 넘어 갈 사항으로 이스라엘-PLO 평화협정체결 후 중동지역에서 나타난 반미 반서방의 구호는 아랍민족주의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아랍대의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아랍민족주의의 현주소는 개별 아랍국가 이익으로 변한지 오래되기 때문이다.

또한 이스라엘내 강경파들도 온건파의 생각 즉 미국이 이스라엘을 적극 보호한다는 생각과는 달리 이스라엘-PLO 평화협정이 머지않아 현정평지인 골란고원 반환으로까지 이어져 결국 이스라엘존립을 위태롭게 만드는 신호탄이 된다고 생각하고 평화협정을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요컨데 이스라엘-PLO평화협정은 협정당사자들 전체를 전부 만족시키지 못하는 불완전 협정이며 미국의 국가이익과 아라파트의 입지강화을 위하여 체결된 협정으로 평가되어 진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기에 이 평화협정에 따른 자치계획의 완전 이행여부는 현 중동지역의 명실상부한 패권지인 미국에 집적으로 달려있지만 또 한편으로 PLO내의 향후 내부권력의 변화에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 즉 평화협정의 향방을 가늠하는 가장 중요 변수는 미국과 PLO의 태도라 할 수 있다. 아무튼 팔레스타인국가가 완전히 수립되어 이스라엘과 평화공존하여 세계평화에 이바지 하려면 평화협정에 대해 미국과 PLO가 확고부동한 태도를 취할때 본래의 평화협정의미를 살릴 수 있을 것이다.

지난 9일 PLO의장이 튀니스의 PLO본부에서 이스라엘 승인문서에 승인하고 있다. <사진 : 한겨레>

PLO 전체의 이해관계가 기반되지 않은 불완전 협정

미국과 아라파트 위한 협정, 반발 뒤따라

이 책

올바른 언론사 인식은 언론 민주화의 지름길

사회전반에 걸쳐서 언론이 가지는 역할과 힘은 매우 크다. 대중들의 인식을 조장하는 언론의 힘때문에 우리나라의 언론은 기득권세력의 탄압대상이 되어왔고 심지어는 권력유지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하였다.

이렇듯 기득세력의 노리개감이 되어왔던 언론을 살리고자 많은 언론인들이 언론민주화와 왜곡된 언론사를 바로잡기 위한 운동을 끊임없이 전개하였다.

'새로쓰는 한국언론사(김민남외 5명 지음, 아침)'는 왜곡된 언론사를 바로잡아 언론의 나갈 방향을 시사해 주고자 만들어진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 위원회의 기념사업으로 기획되었다.

이책의 필자들은 사회경제사적으로 통일된 관점을 갖고 역사적인 실증과 민족주체적 입장을 견지하면서 사료들을 다시 정리하고 해석하였다.

이책은 다른 언론서적들과 여러가지로 차이점을 보여준다.

먼저 각 시대언론의 평가를 당시의 언론을 이끌어 가던 주체들의 재평가부터 시작하였다. 지금까지 좋게 인식되어 온 개화파에 대해서 부르주아 혁명운동을 조직하였으나 봉건제도의 철저한 청산을 하지 않은점 등으로 재평가를 하였다.

또한 그들에 의해 발간되었던 한성순보는 국민의 사상을 전혀 수렴하지 않고 그들의 주관적 관점을 시사하는 정보지 수준으로 그쳤다고

재평가 하고있다.

이책은 또한 시대구분을 사건사수준내지 변천사 수준으로 머물고 있는 다른 서적과는 달리 언론사와 연관시켜 전체구조사 수준으로 끌어올려 재편성하였다.

조선시대 이조초기에서 1895년까지 양반관료들에게 조정의 소식을 전해주던 조보를 우리나라 신문의 기원으로 본것과 1945년부터 48년까지를 미군정시대의 언론으로 따로 분류한것은 특이할만한 일이다.

이책의 또다른 특징으로는 시대적인 사건들을 보도했던 기사의 서술에 그치지 않고 사건과 당시 상황의 왜곡부터 기사의 내용까지 다시 평가를 하여 올바른 관점을 세우려 하였다는 점이다.

우리가 소위 '민족지 동아일보 항일운동의 쾌거'로 알고 있는 손기정선수 일장기말소사건이 항일의 공적으로 왜곡되어 왔다는 걸 이책을 통해 알수 있다.

일장기를 처음 삭제한 신문은 조선중앙일보였고 동아일보는 일개 체육담당 기자에 의해 행해진 일이었다.

그러나 동아일보가 그후 일제와 손잡고 일제를 위한 언론기관으로 선전함으로써 지금까지도 이 사건은 왜곡되어 왔다.

우리는 한국의 언론사가 정부수립후 지금까지 독재정권 하에서 얼마나 왜곡되어 왔는지 알수 있다.

이승만 독재시절 언론탄압법인 광무신문지법 철폐투쟁부터 시작하여 59년 '경향신문'폐간 반대운동, 한국언론노동운동 등 지금까지 많은 자유언론을 위한 투쟁이 전개되어 왔다. 이러한 투쟁은 잘못되어 온 우리의 언론현실을 고쳐나가는 과정이다.

'새로 쓰는 한국언론사'도 언론의 민주화를 위한 운동의 성과물이라고 할수 있다.

<김민홍 기자>

학/술/단/신

국민학교 명칭의 배경과 개정이유

오는 9월25일(토) 오후3시 홍사단대강당에서는 본교 부설 사학연구소 주최로 '국민학교 명칭 개정'에 대한 공개강좌가 열린다.

박창희교수(본교 사학과)가 연사로 나올 이번 강좌에서는 국민학교의 명칭이 만들어진 배경과 왜 명칭개정이 이루어져야하는지를 주로 다룰 예정이다.

1941년 일본천황이 조선의 식민지 통치와 식민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소학교(小學校)를 국민(國民)학교로 개정하였다.

45년 해방은 많은 일제의 잔재를 제거하고 우리의 주체적인 민족사를 형성해야하는 과제를 부여한다. 그런데도 아직 위 명칭을 특별한 비판의식 없이 사용하고 있다. 과거 총독부건물이 허물어지고 있는 이때 국민학교 명칭개정은 과거의 일을 청산하고 교육개혁을 추진한다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남북한 통일방안 법제도적으로 모색

지난 16일(목) 오후2시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장에서는 지난 5월에 이어 두번째로 통일문제 학술시민포럼이 열렸다.

아시아 사회과학연구소 주최로 열린 이번 시민포럼은 '남북연합시대를 대비한 법·언론의 과제'란 주제로 이장희교수(본교 법학과)를 비롯해 7명의 교수와 시민들이 토론을 가졌다.

새정부의 통일방안은 화해와 협력→남북연합→1민족 1국가 단일민주통일국가의 단계로 진행되는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기초로 남북연합을 실현하는 것이다.

한반도를 둘러싼 4대국의 이해충돌, 북한의 국제적고립 및 국내 경제상황악화등을 미루어 볼때 통일은 하루빨리 이루어 져야 한다.

통일국가의 중간단계라 말할 수 있는 남북연합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쌍방이 상호실체를 법적으로 인정하고 다각적인 교류·협력을 통해 상호 신뢰를 쌓아가야 한다. 남북연합은 평화공존에 입각, 비정치적 분야에서 민족공동체의 형성을 목표로 하는데 여기에서 통일정책과 통일관련 헌법조항과의 충돌이 예상된다.

이를 대비해 남북한은 각기 남북연합의 정신에 맞게 국내헌법및 관련법률을 정비해야 한다.

또 우리는 연방제에 대한 콤플렉스에서 과감히 벗어나서 남북한이 한민족통일방안과 수정된 고려연방제에 대해 각기 공감대를 형성하려 노력해야 한다.

이번 포럼의 의의는 남북통일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를 시민들과 함께 공유해가는 자리였다는 데 들 수 있다.

종합품질관리(TQC) 제도

소금상자

종합품질관리(Total Quality Control) 제도는 품질향상과 생산성을 올리는데 기여한 우수기업을 선정, 포상하는 제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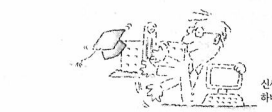
일종의 KS제도와 유사한 이것은 원래 미국에서 처음 개발하고 일본이 응용하여 품질향상에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즉, 이제도로 말미암아 일본이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룩하는데 한몫을 한 것이다.

우리나라도 75년 이 제도를 채택, 공업 진흥청 관장하에 각 기업의 신제품 개발·품질수준·고객만족도 등 30여개의 심사를 거쳐 우수기업을 결정하게 된다.

그런데 최근 기아서비스가 작년에 이 상을 타기위해 관계공무원, 심사위원 등에게 뇌물을 준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 제도에 대한 타당성을 의심하게 되었다. 또한 중소기업은 거의 심사대상에서 제외되고 심사과정이 다소 형식적이라는 지적도 있어 이 제도전반에 걸쳐 시급한 보완책이 요구된다.

천리안이 신세대에게 드리는 가장 저렴한 서비스 — 천리안 POP

"지금 「천리안POP」의 세계로 오십시오"



신세대는 팔방미인, 하바드 박사도 부럽잖다

시간과 돈을 절약하면서, 다양한 이성친구를 사귈 수 있다

10월 1일부터 01420 으로, 전국 어디서나 시내전화요금으로 천리안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야구, 축구, 볼링에서 바둑까지 — 스포츠 해설상식의 스타가 된다

PC통신의 세계가 이렇게 신나는줄 몰랐어요

문화예술에서 시사정보까지 — 정보맨이란 소릴 듣는다

돌아다니지 않고도 쉬엄쉬엄 아르바이트 정보가 많다

신세대는 미래파, PC철학관으로 사주·운명·궁합도 본다

짧다고 다 신세대 일까요? 재밌게 잘하고, 친구도 다양하고 취미도 즐길줄 알고, 정보도 훤~해야죠. 신세대에 꼭 필요한 종합정보서비스, 천리안 팝! 천리안 팝은 월정액 6천원만으로 PC통신과 정보 서비스를 요금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는, 가장 저렴한 종합정보서비스입니다. 천리안POP! 지금 신청하십시오!

"무료서비스인 'GUEST'를 이용해보세요"

천리안서비스중 공개서비스(생활 및 공공정보)를 GUEST ID를 통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천리안 팝이란? : PC통신을 즐기는 신세대를 위해 국내 최고의 종합정보서비스 천리안에서 주요 통신기능과 일상생활 정보를 엄선하여 제공하는 가장 저렴한 서비스입니다.

■ 천리안 서비스란? : 데이콤의 종합정보서비스로서 키보드만 누르면 각종의 다양한 정보이용과 대화, 토론, 동호회를 즐길 수 있으며, 가입 즉시 이용할 수 있는 국내 최고, 최대의 서비스입니다.

*PC통신 : 250여종의 통신서비스 *정보이용 : 900여종의 데이타베이스

■ 신청방법 : 모뎀이 있을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데이콤 지사와 지점에 문의하시면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 요금자동납부제도를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데이콤

데이콤 종합안내센터 (02)220-0220
080-023-0220 (데이콤 요금부담전화)

전국지사 ●부산지사 : 220-0220 ●전남지사 : 225-0011~3 ●경북지사 : 753-9991~4 ●충청지사 : 220-0220 ●전북지사 : 253-6661 ●강원지사 : 48-0001~2 ●제주지점 : 56-0656 지점점 ■서울·경기 ●강남 : 553-1741~4 ●강동 : 479-0220 ●강북 : 986-0321~3 ●강서 : 653-6001~2 ●서대문 : 707-0220 ●서초 : 552-3340~1 ●동산 : 702-3041 ●중앙 : 232-6464 ●부천 : 657-1117 ●인천 : 435-0515 ●수원 : 252-9001~5 ●성남 : 702-0110 ●안양 : 41-1601~3 ●의정부 : 45-3535 ■대구·경북 ●동구 : 426-0700 ●중앙 : 351-8000 ●안동 : 54-6268~9 ●포항 : 72-5500 ■부산·경남 ●동부 : 248-9300~3 ●동부 : 633-6101 ●마산 : 41-3840~1 ●울산 : 75-0077~9 ●충무 : 41-0040 ■광주·전남북 ●광주 : 364-4200 ●이리 : 745-2400 ●목포 : 72-0110 ●전주 : 83-5277 ●군산 : 42-1009 ■대전·충청 ●대전 : 257-1007~8 ●천안 : 555-6500 ●청주 : 52-9645 ■강원 ●강릉 : 645-5001~8 ●춘천 : 54-4388 ●원주 : 732-3200 ■제주 ●제주 : 55-7335~6

□국회동의 통해 법제화돼야 할 남북합의서

'종이 한장'으로 그쳐서는 안될 통일논의의 옥동자

피해선 안될 합의서 처리

제165회 정기국회가 9월 10일 개회된 이래, 공전을 거듭하다가 지난 16일(목) 정상화되었다.

김영삼 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리는 이번 정기국회는 정부에게는 큰 의미를 가진다. 그것은 근래 몇년 동안의 정기국회에 비해 3배가 넘는 1백80여건의 법안이 의사당 앞에 줄지어 서 있는 것에서 드러난다. 출범 이후 쉴새없이 몰아쳤던 사정개혁에 대한 국민적 호응의 '약효'가 한계수위에 다다른 지금, 정치·경제·사회 등 각 분야에 대한 정책대안 중심의 '제도적 개혁'이 뒷받침 되느냐의 여부가 궁극적으로 개혁의 성패를 가름할 것이기 때문이다. 국회도 마찬가지다.

"여야가 따로 없고 오직 '청와대당'과 '국회당'이 있을 뿐"이라는 지조가 말해주듯 새정부 출범 7개월 동안 국회는 '정치의 중심'으로써 자기역할을 다하지 못했다.

"그 동안의 개혁작업을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창조적인 정책대안을 강구… 특히 입법 활동을 통해 개혁을 구체화, 제도화 시켜야 한다"는 국회의장의 개회사는 그간의 '들러리 역할'을 일소하고 국민의 대의기관이자 정부를 견제할 입법부로써 책임을 수행해야 하는 점에서 '새삼스러울만큼 당연한 결의'이다. 요컨데 분민시대의 첫 정기국회는 국민의 기대가 집중되고 있는 산적한 현안에 대한 '제도개혁'의 갈림길이라는 점에서 국회와 정부의 개혁의지의 진실성을 시험하는 리트머스 종이가 될 전망이다. 그것은 '산적한 현안'의 가장 중요한 요소중의 하나인 통일문제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통일분야에 있어 이번 정기국회가 피해가서는 안될 중요한 사안으로는 단연 '남북합의서 처리문제'를 꼽을 수 있다. 모두 3장에 걸쳐 22조로 구성되어 있는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는 그 전문에서 밝히고 있듯이 '분단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뜻에 따라… 민족 공동의 이익과 번영을 도모하여 평화통일을 성취하기 위한' 분단 47년 동안 통일에 쏟아부어졌던 전민족적 노력의 결실임에 분명하다.

'약식조약'아닌 '정식 조약'

그런데 문제는 '통일논의의 옥동자'라고 불리는 합의서가 서명된지 2년이 다되어 가는 지금까지도 이행되지 않고 있음에 있다. 그것의 일차적인 이유는 합의서의 법적성격에 대한 입장 차이에 기인한다. 지금까지 남한정부는 합의서의 법적 성격을 '민족내부의 특별관계를 규정한 단순한 정치적 강령'으로 해석해 왔다.

따라서 국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았고, 이를 두고 정부와 해석을 달리하는 진영에서 '주권자로써의 국민을 통일과정에서 소외시키는 남북관계에 대한 정부의 창구독점 의도'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의 합의서 해석에 대한 비판세력은 '합의서는 국제법적 주체성을 가진 남북한의 당사자가 문서로서 합의한 조약'이라고 해석한다. 또한 '국제법도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는 헌법 규정에 의해 합의서는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는 견해다.

견국, '합의서의 국회 동의 여부'는 합의서를 '정치적 강령'으로 볼 것인가, '조약'으로 볼 것인가에 의해 달리지는데, 이는 지금의 남북관계를 어떻게 볼 것인가의 문제로 귀결된다. 기존 정부의 논리는 합의서 전문의 남북관계 규정이 '쌍방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로 밝히고 있기 때문에 '조약'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학계의 일반적인 시각은 이와 다르다. 민족 내부의 경제적 교류가 국가간의 교역으로 인정되어 손실을 입을 수 있는 점 등을 우려하여 남북 사이에 내부적인 특수관계 설정의 필요성을 부분적으로는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민족내부 교류가 합의서 전문의 특수관계에 맞게 국제적 공인을 받는 외교적 노력'과 '남북간에 자유무역지대를 형성하여 GATT 제 24조에 대한 예외조항을 인정받는 방식'등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결국 이같은 특수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북한을 대외적으로 주권국가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국가 사이에 체결된 조약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7·4 공동성명과는 달리 남북총리가 조약체결권자의 위임에 의해 전권을 가지고 적법하게 체결하였고 의사의 합치에 하자가 없다'고 말한다. 아울러 '통일의 민족적·국가적 중요성' 합의서 실행은 경제교류·협력면에서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을 지운다는 점을 들어 '약식조약'이 아닌 '정식조약'으로써 국회비준 동의는 필수적이라는 설명이다.

이같은 학리적 이유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정치역학 관계에 의해서도 합의서의 국회 동의는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당시로서는 민족의 통일바램에 획기적인 청신호로 평가받았던 7·4 남북공동성명도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참여가 없었기 때문에 이후 유신체제선포를 위한 발판으로 이용당하여 사문화 되었다는 주장이다. 또한 북한은 91년 12월 26일 '중앙인민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상설연합회의'에서 나름의 국회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이후 원활한 남북대화를 위해서도 유의미하다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합의서의 국회동의를 통한 구속력 있는 이행이 지연되고 있는 보다 본질적인 이유는 다른데서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은 국가보안법과 미국등의 간섭으로 해석된다. 합의서가 조약이라면 국내법과 동등한 효력을 발휘하므로 국가보안법과 대등한 지위를 가지게 된다. 이럴때 국가보안법과 합의서의 내용이 상충되므로 신법우선의 원칙에 따라 국가보안법은 존폐의 위기에 놓이게 되는것을 정부가 우려했기 때문으로 풀이할 수 있다.

합의서 이행이 국가보안법 폐지 문제와 연결되는 것이 바로 이 지점이고 이를 해결하지 않고는 아무리 새정부라도 통일논의는 교착상태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1948년 제정되고 1958년 개정된 이후 기본골격을 유지해 오고있는 국가보안법은 냉전시대의 북한을 전제하여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있으니 합의서 서명의 시대배경과 모순되는 것은 당연하다. UN 동시가입과 고위급 회담을 통한 합의서 서명은 남한이 북한을 더이상 반국가단체로 보지 않겠다는 의사표현이다. 북한으로써도 남한이 줄곧 우려해왔던 '대남적화통일노선'을 포기한 것이고 남한정부 대표가 이를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이 합의서이다. 이는 합의서 서명 다음날 노태우 대통령이 여야대표 등을 불러 회담성과를 설명한 가운데서도 '공증'된바 있다.

미국 등의 간섭도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미 3단계 회담'은 살얼음판을 걷는 듯 신중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이 세우고 있는 대북한 정치일정 보다 남한이 앞서 나가는 것을 제어하고 있는 미국에 의해 남·북의 자주적인 통일논의가 지연되고 있음은 지난 9월 10일 '북한 핵문제 담당 한—미 실무합동회의' 결과에서 밝혀진다.

'재야', 백만인 서명운동

결국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합의서 비준·동의'의 전망은 어둡다. 정부내 주무부처인 통일원 관계자는 합의서 국회동의안에 대한 준비내용을 묻자 "계획에 없다"고 잘라 말한다. "지난 봄에 국회 의무통일 위원회에서 '합의서 이행 촉구 결의문'을 채택한 것을 국회동의로 '간주'한다"고 입장을 밝힌다.

민주당은 외무·통일분야에서 '남북합의서 국회동의 완결'을 목표로 세우고 있다. "남북합의서의 성격규정을 모호하게 하면서 정부가 국회동의를 거부하는 것은 남북관계를 여전히 정치적 목적에 활용하려는 의도와 이로 인해 법적 책임을 사전에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 민주당 측의 주장이지만, 합의서의 국회동의에 얼마나 비중을 두어 당력을 모아줄지는 미지수다. 이에 비해 전국연합에서는 '국가보안법 철폐와 합의서 국회동의를 위한 백만인 서명운동'을 지난 7월부터 벌여오고 있다.

이들 재야통일운동진영은 '각 지역·부문 통일운동 역량이 결집하고 남북대화에서 남한의 대미 자주성을 촉구하며 합의서의 국회동의'를 목표로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을 중심으로 서명운동을 계속 진행하여 10월 중순께 국회에 청원할 예정이다. 지금도 법적으로는 좋이 한장에 불과한 합의서, 그 이행이 또 한해를 넘길 것인가? 합의서 서명 두돌이 되는 12월 23일이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다.

김 정 원
<자유기고가>

지난 91년 12월 23일 채택된 남북합의서는 통일에 쏟아부어졌던 전민족적 노력의 결실이었다.

국제법적 주체성 가지고 합의…국내법과 같은 효력

국보법·미국, 구속력 있는 합의서 이행 지연시켜

□한·약 분쟁 해결을 위해

'밥그릇 싸움' 아닌 건강 수호를 우선으로…

"돈을 뗏으려는 사람과 뗏길 치지에 놓인 사람이 싸우고 있습니다. 한사람이 나타나 싸우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보사부는 싸우지 말라고만 이야기하죠. 그리고 기껏 내세우는 해결책은 다 기저기저 말고 반만 가지라는 겁니다" 경희대 한의학과 본과 1학년인 이승구씨가 이야기하는 현 한·약 분쟁에 대한 비유이다. 한마디로 한의사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뗏길 치지에 놓여있고, 보사부는 본질은 생각하지 않고 둘다 비슷하게 고려하는 척 한다는 것이다.

'한약도 약이므로 약사가 한약을 조제해야 한다'라는 약사의 주장으로 앞의 이야기를 다시 보면 돈을 뗏긴 사람은 오히려 약사일 수도 있다.

개정 약사법에서 논쟁의 초점이 되는 것은 '의약분업'에 대한 문제이다. 보사부는 한방도 의약분업을 실시하며 한약사와 양약사를 구분하지 않겠다고 한다. 즉 약사들이 한·양약을 모두 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준비기간으로 양방은 2년, 한방은 5—7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하였다. 그리고 현재 약사의 한약조제권에 대해서는 "의약분업 실시때까지는 1년 이상 한약조제 경력을 가진 약사에 한해서 한약을 임의조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당장은 일부에 한해 약사의 한약제조권을 인정하고, 한·약분업이 되었을 때 약대의 한약 교과과정을 강화해 전면적 전시키 국민건강을 지키겠다는 것이라면 의·약분리는 다시 이루어져야 한다. 한방내에서 의약분리와 함께 양약내에서 한약제료를 이용해 발전시킬 수 있는 영역을 인정해주어 연구의 폭을 넓히는게 옳을 것이다. 그리고 현재 한의대생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한약사자격제도를 실시하여 한의대생·약대생 관계없이 일정한 자격이 되는 사람에게 제조권을 허가하는 방법도 보사부는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단순히 의약분업 뿐만 아니라 갖가지 많은 문제점들이 제기되었다. 한약이 비싸다거나 제료의 진품을 가릴 수 없다는 등의 문제들도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편도 함께 강구해야 함이 마땅한데,

한의사…한약사 자격제도 실시해야

약 사…한약재 이용한 연구 인정해야

한의사나 약사가 아닌 일반 시민들은 무엇이 옳은지 판단도 서지않은 상태에서 2백일 동안이나 계속되는 한·약 분쟁을 보는 것에 이제는 진절머리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보사부는 보사부대로 개정안에 또 개정안을 만들고도 한·약 모두에게 비판을 받고있다.

한마디로 전국민이 답답함을 느끼고 있고, "밥그릇 싸움"이라는 비난까지 나오고 있는 이 문제의 본질은 무엇이고 해결책은 과연 무엇인가.

한·약 분쟁은 지난 3월 5일 약사법이 개정공포되면서 시작되었다. 약사법 중 '약국에는 재래식 한약장 이외의 약장을 두어 이를 깨끗이 관리하여야 한다'라는 약사의 한약조제 금지조항이 삭제되면서 한의계의 집단적인 반발을 샀던 것이다. 전국 11개 한의대학생들이 수업거부·전원유급 사태에 놓이게 되면서 이 사건은 보사부의 목을 조이게 되었다. 한·약계 모두가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목소리를 높이는 상황에서 9월 14일(화) 보사부가 새로 입법예고한 개정 약사법은 또다시 한·약계의 비판을 받고 약대생끼리 과업에 들어가 있다.

"한의사나 약사가 아닌 일반 시민들은 무엇이 옳은지 판단도 서지않은 상태에서 2백일 동안이나 계속되는 한·약 분쟁을 보는 것에 이제는 진절머리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보사부는 보사부대로 개정안에 또 개정안을 만들고도 한·약 모두에게 비판을 받고있다.

한마디로 전국민이 답답함을 느끼고 있고, "밥그릇 싸움"이라는 비난까지 나오고 있는 이 문제의 본질은 무엇이고 해결책은 과연 무엇인가.

한·약 분쟁은 지난 3월 5일 약사법이 개정공포되면서 시작되었다. 약사법 중 '약국에는 재래식 한약장 이외의 약장을 두어 이를 깨끗이 관리하여야 한다'라는 약사의 한약조제 금지조항이 삭제되면서 한의계의 집단적인 반발을 샀던 것이다. 전국 11개 한의대학생들이 수업거부·전원유급 사태에 놓이게 되면서 이 사건은 보사부의 목을 조이게 되었다. 한·약계 모두가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목소리를 높이는 상황에서 9월 14일(화) 보사부가 새로 입법예고한 개정 약사법은 또다시 한·약계의 비판을 받고 약대생끼리 과업에 들어가 있다.

개정 약사법에서 논쟁의 초점이 되는 것은 '의약분업'에 대한 문제이다. 보사부는 한방도 의약분업을 실시하며 한약사와 양약사를 구분하지 않겠다고 한다. 즉 약사들이 한·양약을 모두 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준비기간으로 양방은 2년, 한방은 5—7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하였다. 그리고 현재 약사의 한약조제권에 대해서는 "의약분업 실시때까지는 1년 이상 한약조제 경력을 가진 약사에 한해서 한약을 임의조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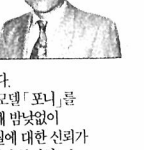
당장은 일부에 한해 약사의 한약제조권을 인정하고, 한·약분업이 되었을 때 약대의 한약 교과과정을 강화해 전면적 전시키 국민건강을 지키겠다는 것이라면 의·약분리는 다시 이루어져야 한다. 한방내에서 의약분리와 함께 양약내에서 한약제료를 이용해 발전시킬 수 있는 영역을 인정해주어 연구의 폭을 넓히는게 옳을 것이다. 그리고 현재 한의대생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한약사자격제도를 실시하여 한의대생·약대생 관계없이 일정한 자격이 되는 사람에게 제조권을 허가하는 방법도 보사부는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단순히 의약분업 뿐만 아니라 갖가지 많은 문제점들이 제기되었다. 한약이 비싸다거나 제료의 진품을 가릴 수 없다는 등의 문제들도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편도 함께 강구해야 함이 마땅한데,

<사회부>

"「포니」 신화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1976년 국산차 수출1호로 에콰도르에 상륙한 5대의 「포니」. 18년간 약 90만km씩을 달렸으나 아무런 결함없이 운행되고 있다.
(1993년 4월 22일, 에콰도르 수도 '키토'에서)



중남미지역수출팀장 이 정 태

생각해보면 어려운 시절이었습니다.
우리 손 우리 기술로 최초의 국산모델「포니」를
만들고 난후 수출시장 개척을 위해 밤낮없이
뛰었지만 우리 차의 기술력과 품질에 대한 신뢰가
부족한 때였어서 고비고비마다 벽에 부딪치고는
했습니다.

그런 시절 국산차 수출 1 호로 에콰도르에 처녀수출했던
다섯대의 포니 —
지금 18년을 뛰고도 끄떡없이 달리고 있는
그「포니」는 다름아닌 오늘 세계 160여개국에
250만대 이상을 수출하게된 품질력과 신뢰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때 풋나기 사원이었던 제가 어느덧 포니의
연륜만큼이나 고참사원이 된 지금, 또다시 새롭게
수출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비행기 트랩을 오를
후배들에게 이런 격려의 말을 해주려 합니다.

"포니신화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좋은 환경, 좋은 차
현대자동차

우리것을 지키는 외대인—〈3〉

한국어교육과
3학년 이신우

"우리말에는 아름다움과 따스함이 함께 깃들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글은 역사의 질곡 만큼 파란만장한 역사를 가졌다. 일제 의 '조선어 말살정책'은 최대의 수난이었다. 힘겨운 상황에서도 독립 투쟁을 끝까지 전개할 수 있었고, 민족을 하나로 묶어낼 수 있었던 것은 '우리말과 글'을 지키려는 노력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자문화와 일본문화의 교묘한 침투, 무분별하게 몰려온 미국문화는 우리말 뿐만 아니라 우리 고유 문화마저도 크게 흔들리게 하고 있다. '언어는 사회의 공기' 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말과 글에는 이 사회의 모순이 투영되어 있다.

그는 현재 우리말에 있어 심각한 문제로 분단이후 남북의 언어가 걸잡을 수 없으리만치 이질화 되어 간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 단적인 예로 몇년전 남한에 왔던 북한 기자는 북의 언어에 비해 남한의 언어는 일본과 미국의 언어 문화 영향을 너무 깊이 받은것 같다며 안타까워 했었던 기억이 난다며 "TV코미디에 나오는 '오데로 갔나'는 이런 서글픔을 갖게 한다고 한다. "민족의 통일에 있어 언어의 이질화는 커다란 벽이 되죠. 그날을 위해서 '진정한 우리말의 모습'을 되찾는게 시급합니다. 왜냐하면 민족의 생각과 혼을 담은 언어만이 남과북을 이을 수 있는 보이지 않는 끈이기 때문입니다."라며 남과북의 언어 통질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그는 '우리말 바로쓰기 운동'을 하다 보니 이전에는 쉽게 지나쳐 버린 우리말의 따스함을 느끼게 된다고 한다.

"우리말과 글은 쓰면 쓸수록 아름다움을 느끼게 합니다. 우리 민중의 생활정서와 애환이 깊이 배여있죠. 선조들의 혼을 느끼고 있다는 착각까지 들게 하니까요."이런 이유가 민중의 생각을 가장 적나라하고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게 할 것이다.

"젊은이들이 주체적인 사고를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말과 글속에서 호흡하고 사고해야 합니다."라며 특히 우리 외대생은 다른 나라 언어와 문화를 배워 우리것으로 새롭게 창조해나갈 일꾼임을 잊지 말고 우리말을 제대로 알고 배우려는 자세가 중요함을 당부했다.

<오미나 기자>

한지어, 일제 잔재인 일본어, 국적을 알 수 없는 외국어의 범람.

이것이 우리말의 현실이다. 이제다 한번쯤 이러한 현상에 문제성을 인식하는 사람은 많다. 그러나 깊이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려는 이들은 그리 흔하지 않다.

이신우(사범·한4)군은 중고등학교시절 친구와 옷에 적힌 영어 글자 수를 세어보는 놀이를 하다가 옷을 수 밖에 없었다고 한다. 생각보다 그 수는 엄청나 뒤통수를 얻어맞은 기분을 감출 수 없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가지고 대학에 들어 왔고, 우리말에 대해 좀더 깊이 연구해보고 싶어 '우리말 연구회'에 들어갔다.

그렇게 시작한 우리말에 대한 관심은 이제, 그에게 중요한 일부가 되었다고 한다. 잊혀졌던 순수 토박이말과 고어들을 알아가면서 민족에 대한 사랑으로 변화한 것이다.

"우리말 살리기 운동을 하면서 현실의 벽에 부딪칠때마다 실망도 많이 했지요. 작년 '한글날 공휴일 폐지 반대 서명 운동'을 하다보니 희망이 생겼습니다. 비록 한글날이 빨간 공휴일은 못됐지만, 많은 국민이 우리말과 글을 아끼고 사랑하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죠."라며 밝은 표정을 지어 보였다.

문화 논평 — '신세대 문화'에의 접근〈1〉

'신세대 현상', 필연인가 우연인가.

다함께 누려야할 풍요가 신세대만의 특권일 수 없다!

신세대에 대한 논쟁이 각 언론지 혹은 방송매체를 통해 논란이 되고 있다.

그러나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90년대에 소위 '신세대'와 '구세대'로 이름붙여진 현실을 시간이 흐르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안일한 태도나 혹은 한 때 젊은이들의 객기라고 간단하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모든 문화적 형태들이 당시의 경제, 정치, 사회적 현상을 반영하듯 신세대들의 등장은 결코 느닷없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지금의 신세대들은 90년 전후로 세계적인 계급투쟁이 실패함과 동시에 자연스럽게 등장할 수 밖에 없었던 세대들이었고, 무엇보다도 이들은 지금의 기성세대와는 달리 물질적 풍요로움과 문화적 혜택을 받으면서 성장한 사실을 인정해야 할것이다. 그 만큼 이들은 '오랜동안 인류의 숙원이었던, 물질적 풍요로움과 기계가 주는 편리함을 누릴 수 있는 혜택이 필연적으로 주어진 세대인 것이다. 이에 따라 이들의 욕망이나 가치관 역시 예전의 가난에서 배워온 '도덕'이나 '윤리'에 의해 강요되지 않으며 또한 강요될 수도 없다.

그 한가지 특징적 실례로 '몸'의 문화가 변하고 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그동안 우리는 금욕의 절제를 미덕으로 여김에 따라 욕체를 일하는 몸으로, 즉 '노동력'으로서 육체의 가치만을 인정했다면 이제는 '상품'으로 강조되는 가치로 변했다. 그러하여 여성들의 미니스커트는 일상복으로 보편화 되었고 귀거리나 악세사리등은 이제 여성들의 점유물이 아닌 남성들과 함께하는 공동의 소비상품이 되었다.

이렇듯 욕체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한 방법으로도 자리잡아 감에 따라 이들은 과감히 자신의 몸으로 느끼고, 즐기고, 가꾸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욕체를 통해 자신을 표현할 줄 아는 이들의 감정은 기존의 세대와는 다른 가치관을 드러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강박위한 소비사회가 초래함에 따라 "상품소비를 부추기는데 욕체가 이용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문제는 바뀌어진 가치관과 상품소비를 부추기는 소비사회가 아니가. 오히려 이들의 욕망을 과소비와 퇴폐문화로 규정하는 것에만 만족하지 않고 소위 '고통분담론'이라는 논리로 국민들에게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며 '일하는 자'들만이 대우받는 사회로 만들겠다는 현정권의 허울좋은 이데올로기에 더 큰 문제가 있는 것이다.

물론 인간은 자신의 노동 능력을 발휘함으로써 그 자신의 본질을 실현한다. 이런 의미에서 노동은 자유로운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계급 사회에서 노동하는 인간은 생산수단과 분리되어 있으며 생산수단의 소유자를 위해서 일하고 착취당할 수 밖에 없다. 그리하여 노동이 외적 강제로, 비노동이 자유로 나타나면서 전국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생산자'와 '생산수단' 및 '생산물'과의 분리가 소외라는 형태를 띄게 되는 것이다.

이에 니체는 자기의 관심을 위해 적어도 하루의 3분의 2의 자유 시간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은 일종의 노예적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자신의 창조적인 삶을 위해 하루에 몇시간을 무자할 수 있는 것인가. 자신의 몸뚱아리를 왜곡된 노동의 현장에 묶어두면서 과연 노동의 신성함을 인정할 수 있단 말인가.

아니다. 자유롭고 창조적인 삶은 결코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노동의 고통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오랜 역사동안 인간이 만들어 놓은 물질적 삶의 풍요로움과 여가시간을 신세대들만이 누리게 할 것이 아니라 대량상품으로부터 소외된, 바로 대다수 우리들이 함께 누릴 수 있을 때만이 우리는 진정한 노동의 '신성함'과 자유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조 미 라
〈시나리오 작가〉

□공연이야기— '자주적 단결권 쟁취를 향한 93 노래판굿 꽃다지'

공연 예정시간인 5시가 되자 경희대 노천극장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똑같이 옷을 맞춰입고 앉아있는 노동자들, 아이를 등에 업은 아줌마, 지기 학교 깃발을 든 학생들… 모두가 지난 18일(토)에 있었던 '자주적 단결권 쟁취를 향한 93노래판굿 꽃다지'를 보러온 사람들이다.

전국노동조합대표자회의(이하전노대)에서 주최한 이 공연은 정부가 발표한 '노동법 연내개정 연기'에 대한 강한 반발과 노동법을 반드시 개정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모아낸 자리였다.

지난 6월 1일(화) 노동자의 생존권 수호와 노동법 개정등 당면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결성된 전노대는 여러 문제들에 대해 단위노조 차원이 아니라 전국적인 대처를 하고있다.

구시대 노동법의 독소조항을 이용한 노동운동 탄압은 김영삼 정부에서도 여지없이 발휘되고 노조위원장들이 속속 구속·수배되는 상황에서 노동자의 단결이 심한 제약을 받는 것은 누구나 인정한다. 그런 연유로 노동법 개정의 중심과제인 '자주적 단결권 쟁취'를 제목으로 한 것이다.

'천씨'와 '문산댁'이라는 출연자의 만담형식으로 이루어진 공연 중간에 원진레이온 노동자의 파업중인 유신설계공단 노동자들이 나와 상황보고와 결의를 더했다.

1마당 '신한국의 개혁 행진'에는 신한국 창조의 각계각층을 대표할 수 있는 탈들이 등장해 제각기 춤을 추면서 행진한다. 조강을 하면서 지시를 내리는 김영삼대통령과 이를 따라가기 바쁜 비서진과 취재진, 경총으로 모인 자본가 무리들, 서태지와 아이들, 실명제에 놀라 또다른 물밑 거래를 하는 천손들, 참교육 세대들과 손잡고 나가는 전교조 선생님들.

2마당 '일꾼들의 함성과 허깨비의 춤'에서는 노동자들의 일상적인 노동과 삶의 모습을 많은 출연진의 함성과 일하는 동작에서 만들어진 풍물장단과 진법으로 드러낸다. 이 사이에 1마당의 날 중 대중문화와 이데올로기 선전의 역할을 했던 탈들이 하나의 커다란 '허깨비날'을 형성한다. 마치 거대한 문어와 같이 생긴 허깨비탈은 그물을 말고 일하는 사람들의 심단을 분열시킨다.

3마당 '다시 동지의 사랑으로'는 좌절하며 서로 헤어졌다 다시 만나는 애틋한 동지의 사랑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노동법 개정의 내용을 '민주대머리' 박철민과 '통일닭죽이' 정정희의 만담으로 풀어낸다.

4마당은 결의마당으로 노동법 개정투쟁을 조직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방법에 대한 연설과 결의문 채택 등으로 결의를 다진다. 재구성된 민중가요와 풍물판굿은 노동법 개정의 거대한 함성을 더 우렁차게 했다.

사물과 노래, 극으로 두시간 남짓 계속된 공연은 처음부터 끝까지 관중과 함께 할 수 있게 기획한 것이 큰 특징이었다. 함께 춤을 추기도 하고 신곡인 '단결∕ 전노대'를 배우는 과정에서 출연자와의 일체감을 주기도 했다.

노동자를 하나로 모은 '꽃다지'는 전국순회공연을 하며 서울뿐 아니라 전국 어느곳에서나 민말할 예정이다. 〈문화부〉

문화 옹달샘

춤추는 시간여행
—극단 춘추

주인공인 연출가가 80년 광주민중항쟁때 계엄군에게 강간당한 부인의 죽음에 충격을 받고 이 이야기를 연극화한다는 줄거리이다.

붕괴 속에서 끝내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역설적인 상황에서 용서와 화합의 폭과 깊이를 더들어 볼 수 있을 것이다.

(9월 21일—10월 10일 문예회관 소극장 1만원)

민족주의자의 죽음
—김상웅 엮음

민족민주운동과 통일운동의 선구자로서 일생을 바쳤던 고 장준하 선생의 글, 그리고 그의 삶과 의문의 죽음을 다룬 글들을 엮었다.

제1부에서는 함석헌, 백기완, 김준엽씨 등이 장준하선생의 삶에 대해 통찰한 글들을 묶었고, 제2부에서는 장준하 선생이 직접 쓴 "민족주의자의 길" 등 몇 편을 싣어 선생 자신의 생각을 알아보았다. 그리고 제3부에서는 의문점 투성인 장준하 선생의 사인을 다룬 글들을 소개했다. 장준하 선생의 민족애와 통일에 대한 열망을 통해 잠된 삶의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한민사 8천원)

역사속에서 걸어나온 사람들
—니카지마 아츠시 지음

중국의 고전을 소재로 한 '이릉(李陵) 산월기(山月記)'를 번역한 것으로 '명인전', '제자'등 중단편소설 4편을 담고 있다.

사실을 서술하듯 담담한 문장으로 형상화 되어 있다.

옛날 이야기를 듣는 듯한 짜릿한 재미를 주면서도 인간 이해에 깊이 있는 시각을 제공해 준다.

(다섯수레 4천8백원)

우리말의 쓰임새

(242) 곱배기 ▸곱빼기

"짜장면 곱배기 하나 주십시오."

곱빼기란 두 릇의 양을 한 그릇에 담은 분량을 나타낼 때, 또는 어떤 일을 계속해서 두번 거듭하는 것을 나타내는 데 쓰는 단어이다.

이 '곱빼기'란 단어는 전에는 '곱배기'라고 표기했으나 새 한글 맞춤법에는 다른 형태소 뒤에서 【빼기】로 발음되는 것은 모두 '빼기'로 적기로 했기 때문에 '곱빼기'로 적어야 옵다.

<서울캠퍼스 동아리 우리말 연구회>

제50기 수습기자 추가모집

더 늦기전에……

만족스런 대학생활을 보내고 계십니까?
뭔지 모르게
허전하거나
공허하지는 않습니까?
학보사가 그 빈 공간을 메꿔드릴께요.
알맹이가 꽉 찬 하루하루를 만끽하십시오.

△대상 : 93학번
△모집부문 : 일반 · 사진 · 만화기자
△전형방법 : 자기소개서 쓰기 및 면접
△전형일자 : 9월 23일(목)
△원서마감 : 9월 23일(목)늦은 5시
△장소 : 학생회관 2층 외대학보 기자실
(서울 : (02)961—4183
용인 : (0335)30—4112)

'94 학사사관후보생모집

○ 모집인원 : ○○○명
○ 지원자격 :
—. 4년제 대학 졸업자(94.2월 졸업예정자 포함)로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 임관일 기준 만20세~27세인 자(1966.10.1~74.9.30사이 출생자)
—. 사상이 건전하고 소행이 단정하며 체력 검정한 자
—. 각군 사관학교 및 사관후보생 과정에서 퇴교당하지 아니한 자
○ 지원서 교부 및 접수
—. 기간 : '93.9.1~10.2(학군단 행정실)
—. 구비서류

지원서 제출시	신체 검사시
○ 지원서 I부	○ 호적등본 및 주민등본 각2부
○ 대학 전학년 성적증명서 I부 (졸업예정자 4학년 I학기까지)	○ 컬라사진(4×5)4매
○ 칼라사진 (4×5)2매	○ 신원진술서 A양식 : I부
○ 주민등록초본 I부	*기타 수험표, 신분증, 개인도장 관련구 지참
○ 자격증소지자 사본 I부	

○ 선발일정

구분	모집공고/접수	I차선발	2차선발 체력/면접	2차선발 신체검사	신원조회	최종합격자 발표
일정	93.9.1 ~10.2	10.4 ~11.4	11.15 ~11.27	11.29 ~12.11	12.20 94.2.12	94.2.26

○ 문의처 : 학군단 행정실(961-4412, 962-7124)

제 1 1 9 학 생 군 사 교 육 단 장

매체 비평

□ '93 대전 엑스포에 대한 보도 양상

실제의 내용성보다 과대 포장되어 보도되고 있는 엑스포

TV와 신문에서는 연일 엑스포개막 및 일에를 거론하면서 엑스포 소식을 전하기에 여념이 없다.

88서울 올림픽 당시에도 언론들은 이의 성공적 개최를 통한 선진국 진입을 떠들었다. 하지만 그 후에 오히려 우리 경제는 침체와 후퇴를 거듭한 경험을 갖고 있다.

이번 대전 엑스포에 대해서도 언론들은 취업 기회를 통한 선진국 진입의 '꿈'을 국민들에게 심어주고 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진입할 수 있느냐는 뿌리깊은 믿기 짐으로 평가, 한국이 21세기 경제의 주역으로 당당히 거듭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고 다지는 계기(조선일보), 인류의 대업을 걸고 펼쳐지는 축제(한국일보) 등 엑스포에 대해 과대포장하는 언론의 보도양상을 보여왔다.

박람회의 진시기술 대부분이 우리 기술개발을 통한 과학 기술 관련 부분이나 제조업의 수출을 증가시키기 보다는 외국의 기술을 받아들여와서 전시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출한 제정이 상당부분 외국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많다. 이것 외에 대전 엑스포가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언론들은 무관심하거나 적게 취급하는 경향이 있다. 중대일 만는 우리 과학기술(중앙일보 8월 9일자 '취재일기'), 비틀거리는 엑스포(경향신문 8월 11일자 '기자 메모') 등은 보면 알 수 있다.

엑스포를 찾아오는 관람객 중 엑스포의 참공원을 아는 경우는 그리고 신문들은 전장한 참공의 의미를 다시기 보다는 축제로서의 환상을 심어주는데 앞장서고 있다. 또한 과학은 현실이데, 객관적인 진단없이 현재와 미래의 문명과학 발전을 기대하는 것은 국제 사기극이다.

'93대전 엑스포는 국제 박람회로서의 실격에 부합하지 못한 모습이 보인다.

과학기술의 평가라기 보다는 축제의 장으로 오도되어 보도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과학기술 수준에 대한 올바른 위상정립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등에 대한 전망을 내놓으면서 우리의 과학기술 수준을 조절하고 앞당겨 나가는 것은 엑스포 개최의 의미를 찾아야 할텐데 이것 보다는 엑스포 행사장에서 벌어지는 현상들에만 집착하고 있다. 입장객 안내 하루 10KM이상 '중중 걸음'(경향신문 8월 8일자) 등에서 이를 볼 수 있다. 언론은 진지한 입장에서 선진기술 수준과 우리나라의 수준을 비교한 엑스포 기간 중에 냉정한 국제경쟁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는 첨단기술의 개발에 대한 여론을 조성해야 한다. 하지만 '엑스포 특별취재반'은 취재 및 보도 내용에 있어서 '가설성 기사', '문화, 민속축제', '관람 객들의 진지의식', '특이한 볼거리' 등 독자는 하여금 흥미를 끌게하는 뉴스거리에 집착하고 있을 뿐 실제로 개막 초기 각 신문들이 주장한 '진정한 도약의 계기'에 일맞게 내실있는 보도는 거의 찾아 볼 수 없다. 우주탐험관 "장사진"(중아일보 8월 8일자), "폭발사고 날라" 빗속 폭죽터뜨려(동아일보 8월 9일자), 인기전시관 접종현상, 끝내 사고불리(한겨레신문 8월 17일자) 등이 있다.

김영삼정부가 들어서 신정제 정책이 발표되고 추진되는 과정 중에서 개최된 엑스포에 대하여 신문들은 국민경제적 입장에서, 그리고 우리의 과학 기술 수준에 대한 객관적 평가기준 아래서 대전 엑스포의 '성공과 비전'을 냉철하게 조망했어야 했다. 하지만 모든 신문들은 "첨단과학기술의 전시장인 엑스포를 우리가 개최했다."라는 국민적 자부심만을 강조할 뿐, 진정 얻는 것과 잃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는 언급을 회피하고 있다.

진정한 엑스포의 정치, 경제, 사회적 의미에 대해서 언론들은 이제라도 진지한 입장에서 '환상적인 축제'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술 혁신'을 진실성 있게 보여주고 첨단과학기술 육성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할 것이다.

<남정미 기자>

소리통

온 국민이 초등교육을 살려내야 한다

초등교육은 국민으로서의 생활에 필요한 지식을 가르치기본교육, 후속되는 학교교육의 바탕을 마련하는 기초교육, 아동의 성장 발달을 풍부하게 하고 조화롭게 하는 전인교육이기 때문에 어느 단계의 교육보다도 중요하다. 문민시대를 맞이하여 초등교육도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혁되어야 하는데 문민정부는 1인 교사당 학생보유율이 세계 120위로 많은 현실태를 교육공무원 동원로 대처하면 해결되었다.

김영삼대통령의 공약대로 교육예산은 GNP대비 5%수준은 확보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정부예산 대비 교육예산은 3.6%로서 선진국 수준에 훨씬 못미치고 있다. 김영삼대통령이 후보시절 외쳤던 교육예산의 GNP대비 5%는 경제가 위한 지방교육재정과 사교육비를 감하여 현재 4.4%에서 증가하고 있다. 공영교육예산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현실에서 교육예산의 거의 대부분을 중앙예산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교육에 대한 투자는 경제투자보다 더 장기적인 사업으로 그 투자효과가 더욱더 크다는 것은 성식임에도 경제기획원은 교육투자에 방관이고 있다.

50인 이상 과밀된 학급은 이제 없어져야 한다.

과밀학급의 성폭은 수업의 저질화 교사의 부담가중, 학급경영 및 학생지도 부실을 초래하고 있다. 한국의 학생 1인당 교실면적은 1.32(㎡)로서 일본, 미국에 비해 1/4에 되거는 그야말로 장나국 교실이다. 그보다도 교원수 동결은 말도 안되는 후진국적인 발상이다.

세계선생에서 발표한 교사 1인당 학생수는 36명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현재 185개국 중 120위이다. 이것이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김영삼대통령은 경제개발이라는 이유로 교육공무원 수를 동결시키겠 발표를 했다.

초등교육을 담당할 교대를 살려내야 한다.

올바른 초등교사가 되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할 교대가 입시학원화 되어가고 있다. 국민의 세금으로 길러진 교대생들이 실업자로 전락해가고 있다. 교육부는 교사의 수급을 조절할 기구를 만들어 백년지대계인 교육을 담당할 교사양성에 내실을 기해야 한다. 또한 임용고시는 전문자질을 갖춘 교사를 가려내는 종합적인 평가이어야 한다. 90년대부터 치뤄진 이 고시에서는 지식 위주의 내용을 평가하고 있고 논술, 면접에서 객관적인 기준이 미련되지 않아 예비교사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 임용고시에 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상은 서울교대에서 본교 서울캠퍼스에 부착한 대자보 내용의 발췌이다. '우리 일이 아니니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우리의 미래의 교육을 담당할 사람들의 현 교육제에 대한 비판, 시정요구라고 한다면 한번쯤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이다.

명수당(明水堂)

법의 정신

법이 없는 세상이 된것도 아니고 사유재산제도를 부인하는 혁명이 일어난 것도 아닌데 축재가 문제로 되고 축재자가 사회의 지탄을 받고 있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자본주의사회는 상품생산을 통한 자유경쟁을 기초로 한 부의 추구를 종국적인 가치로 하고 있고, 자본주의의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법적기초로서 사유재산제도와 개인의 법률상의 자유와 평등, 특히 계약자유와 원칙을 인정하여 축재하는 것을 권리로서 보장하고 있다. (헌법상의 재산권) 따라서 누구든지 그 창의력과 능력을 발휘하여 부를 축적하는 것은 합법적이고 정당한 행위인 것이지 비난의 대상이 될 성질의 것이아니다.

그런데 지금 축재자를 악덕자로 혹은 범법자처럼 매도 질타하는 것은 무슨 일인가. 그것은 그들이 부정축재자로 지목되기 때문이다. 다시말하면 그 축재가 사회적지위나 명성을 악용한 불법적·탈법적방법의 소치이거나 권력이나 권력적 지위를 남용한 위선적이고 부도덕한 것이기 때문이다. 인간으로서의 양심을 저버리고 사회적인 양식과 국민정서에서 위반하는 수법으로 축재했기 때문이다.

매관매직지나 탐관오리의 존재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오늘날 사회의 구석구석에 만연된 모든 부도덕은 생각해 보면 군부정치권력의 부도덕한 짐권에서 연유하는 것이라 할수 있고, 그 부패 부도덕의 극치는 80년대초에 어린이들의 입에까지 오르내리던 '미나도로보대수'에 표현되었던 것이 아닌가 싶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법의 파수꾼이자 정의의 최후의 보루라고 믿고 싶은 사법부인사들의 부도덕성은 용납될수 없다. 그들에게는 해박한 법률지식뿐 아니라 원숙한 인간성과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는 사람을 심판할 자격이 없는 것이고, 그러한 자질이 없는 사람은 그 길을 택하지 말았어야 한다.

법대로 살고 법에 따라 축재하면 축재가 문제로 될 이유는 없다.

박 원 석
<법학과 교수>

부도덕한 축재나 검은 돈줄을 차단하기 위한 금융신명제나 공직자의 재산공개시책은 반드시 성공해야 하고, 그때에 비로소 정직한 사람들 근면성실한 사람들, 대지에 두발을 붙이고 생활하는 사람들이 보호되고, 질서있는 사회가 건설될 것이다. 우리는 법을 지키고 법에 따라 생활하는 습관부터 정착시켜야 할것이다. 퇴임한 대법원장이었던 이가 법원을 떠날때 '법을 사랑하기 때문에 떠난다'고 한것은 준법을 해야한다는 뜻이고, 법조인으로서의 본분을 지킨 것으로 보여진다.

그런데 우리나라를 두고 '법이 모두 바람에 날린 것인가. 아니다. 법을 사랑하고 존중하기 때문일 것이다.

법은 질서있는 사회적 공동생활을 위한 행위의 준칙이지만, 그것은 다수결의 산물이고, 따라서 다수자 혹은 그때의 권력자의 의도나 목적이 반영될수 있기 때문에 권력에 봉사하는 면이 없다고도 할수 없다. 그러나 법은 정의나 법적안정성 또는 합목적성을 추구하는 만큼 그것에 따라야 하고, 법 또한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법대로 살고 법에따라 축재하면 축재가 문제로 될 이유가 없을 것이고, 경제질서의 확립과 사회의 정의를 이룩할 수 있을 것이다.

정검다리

학내, 컴퓨터 사용에 대하여

현대 문명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컴퓨터는 오늘날 대학인의 생활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존재가 되었다. 특히 학과 수업에서 제출하는 일반적인 리포트에서부터 전산학 논문준비, 공대생들의 전자계산에 이르기까지 대학생활에서 컴퓨터의 쓰임새는 다양하다. 현재는 컴퓨터 보급이 많이 이루어져 이를 소유하고 있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도 보급비율이 높지는 않은 실정이다. 설사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학교 안에서 급히 컴퓨터 사용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이럴 때 학내에서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는 공간과 시간에 대해서 알아보자.

먼저 서울캠퍼스에서 이용할 수 있는 장소는 대학원 1층의 전자계산소와 상경대, 그리고 도서관 지하의 매장이 있다. 전자계산소에는 XT기종 44대, 286기종 3대 그리고 프린터기 4대 설치되어 있고, 상경대 건물에는 386기종 2대, 286기종 10대와 프린터 1대를 설치해 놓고 있다. 도서관 지하매장같은 경우 프린터 이용에 소정의 수수료를 내어야 한다. 그리고 이 모든 장소에서의 이용시간은 평일 9시부터 7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용인캠퍼스같은 경우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는 곳은 지연대 1층 전산실습실과 PC실, 그리고 사회과학대의 2층 경영정보 실습실 등 3곳이 있다. 전산실습실은 전산학과 학생들의 실습장으로 터미널시스템이기 때문에 일반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곳이 아니다. PC실과 경영정보 실습실은 본교 학생이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으며 개방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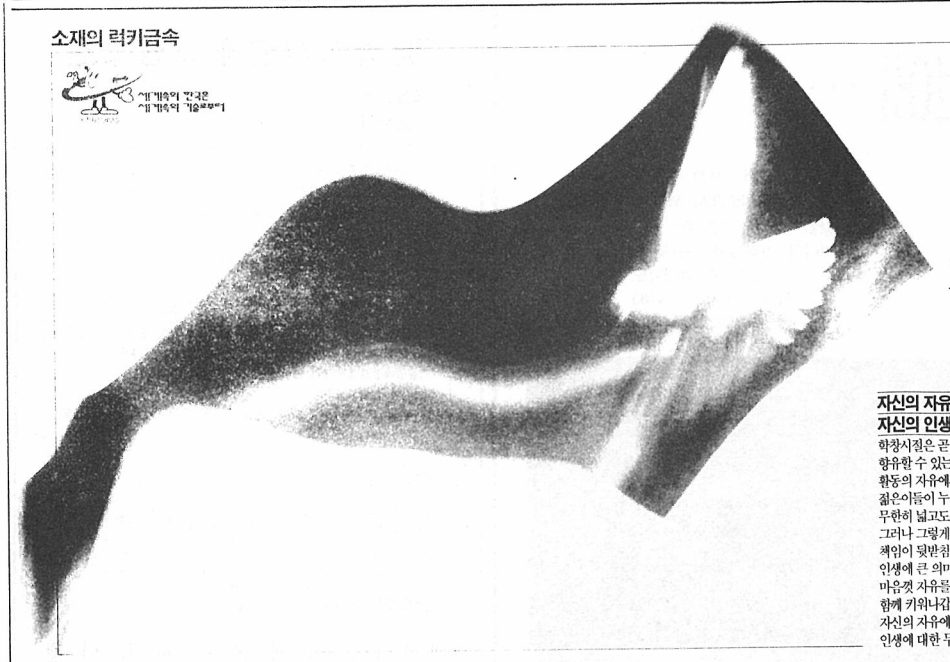
PC실에는 40여대의 컴퓨터와 3대의 프린터기가 있고 경영정보 실습실에는 20여대의 컴퓨터가 있다. 학과별, 그룹별로 실습할 경우에는 사전에 전산실의 승인을 꼭 받아야 하고 그외의 준수사안을 지켜야 한다.

그동안 이용하는 학생이 많지 않아 안타깝게도 컴퓨터가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 학생들이 사용하려는 적극적인 지세가 보여야 학내 전산실에도 번화, 발전된 모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한상준 기자>

소재의 럭키금속

럭키금성



자유는 無限?

자신의 자유에 대한 무책임은
자신의 인생에 대한 무책임입니다.

학창시절은 곧 젊음의 자유를 마음껏 향유할 수 있는 시절입니다.
활동의 자유에서부터 사고의 자유까지, 젊은이들이 누릴 수 있는 자유는 무한히 넓고도 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무한한 자유 뒤에는 책임이 뒷받침된 자유이 필요합니다.
인생에 큰 의미를 갖는 학창시절—
마음껏 자유를 누리되, 스스로를 제어할 자율도 함께 키워나갑시다.
자신의 자유에 대한 무책임은 자신의 인생에 대한 무책임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럭키금속은 이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비철제련—
연간 22만5천톤의 99.99% 電氣銅을 비롯하여 금, 은 등 10여종의 비철금속류 외에 황산, 무수황산, 무수아황산, 도금약품 및 전자공업용 고순도 황산 등을 생산, 공급하고 있습니다.

금속가공—
고품질의 동파이프, 스테인리스 파이프 및 무산소동 管·棒·線과 같은 순동 가공품을 생산 공급하고 있습니다.

특수소재—
후막성도료, 희토류화합물, 고순도금속, 희토류자석 등의 첨단소재생산과 연구개발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럭키금속

□현장취재－지하철공사 노동조합 노사분규 현장을 찾아

승차는 무제한(?) 안전은 제로(/)

생명을 저당잡힌 3백80만

지난 8월 26일(목) 지하철공사 본사 앞마당에서 제2차 결의대회를 가졌다.
<사진제공 : 지하철노조 홍보부>

1기－2기 분리운영 노조탄압 속셈 엿보여

안전과 환경개선을 위해선 정부의 지원 필수

지난 9월14일(화) 파업예정 이틀을 앞두고 극적으로 지하철공사노동조합(이하 지하철노조)의 '93단체임금협상(이하 임단협)이 타결됨으로써 서울시민의 지하철 이용에 불편이 없게 됐다. 하지만 이번 임단협때 교통정책에 대한 많은 문제점들이 제기되었다.

지하철노조는 지난 12일(일)부터 대지보를 역과 전동차 유리에 붙이면서 시민 선전전을 시작했다. 열차 유리창에 부착된 벽보는 지난 5월15일(토), 2호선 당산～합정역 사이에서 일어난 레일사고가 소개되어 있다. 레일이 뱀처럼 구불구불 휘어진 것을 대형히 기관사가 발견하여 급히 제동해 대형사고를 모면했다는 내용이다. 또 '여러분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란 벽보에는 '예비부품의 부족으로 대기 차량의 부품을 빼내어 땜질을 해서 열차를 운행하는가 하면…'등 승객들을 섬뜩하게 하는 문구가 적혀있었다.

이 벽보는 또 92년 한해동안 발생한 레일 훼손사고가 36건에 이른다고 설명하고 있다. 1호선에서 열차를 운전하는 기관사 박인국씨는 "지난해 10월 1호선의 종각～종로3가 사이의 레일이 23cm나 떨어져 운행을 일시 중단한 적이 있어요"라고 말한다.

지하철노조가 제기한 환경문제 또한 안전문제 못지않게 심각하다.

'오염된 지하 공기가 시민여러분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라는 벽보에서는 "서울 대기오염은 세계 두번째, 그러나 지하공기는 지상보다 더 심각합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인체에 치명적인 납성분이 동경지하철보다 무려 14배나 높은 것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라고 적혀있다.

서울시민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에서는 지하공기에 대해 89%가 매우 나쁘다고 생각하고 1.2%만이 불쾌한지 모르겠다고 응답해 지하 환경문제가 절실함을 보여주었다. 노조홍보부장 김영후씨는 "지하터널의 공기는 열차가 움직일때 지상과 연결된 환기구를 통해 공기가 들어오고 나가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환기구 지체가 지표면에 설치돼 있어 오히려 바깥의 오염된 공기가 지하로 유입되고 있습니다"라고 지하공기가 나쁜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또한 "지하공기의 오염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지표면에 있는 환기구를 높이 설치해야 하며, 환기구뿐만 아니라 공기정화시설도 설치돼야합니다. 또 대형 살수장치를 도입하여 선로에 물을 주기적으로 뿌려야 합니다. 하지만 지하철공사는 예산타령만 하며 시민건강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1호선 건설당시 역사내 화장실조차 설치하지 않았던 시와 공사측이 시민의 건강을 고민한다는 것은 어찌면 기대하기 어려운 일인지도 모릅니다"라며 씁쓸한 표정을 짓기도 했다. 또 그는 "그러나 지하철의 안전과 지하 환경개선을 위해서는 정부와 서울시의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외국의 경우에는 건설비의 1백%를, 운영비는 35～83%까지 보조하여 시민의 편의와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경우 서울시가 건설비에 투자한 돈은 겨우 27%에 불과하고 운영비 보조는 20%수준으로 아주 미비한 실정입니다. 하루 3백8십만명의 시민이 이용하는 지하철이 수익사업이 돼선 안될 것입니다"라고 주장한다.

건설비와 운영보조비에는 그렇게 인색한 서울시가 예산이 더많이 지출될 것이 확실시되는 제2기 지하철(5～8호선)을 분리 운영하려한다.

이에 대해 노조측은 "서울시에서는 현지하철의 경영구조가 방대하고 부채가 과다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지만 설득력이 없다. 그것보다는 특정인사에 대한 자리마련이라는 정치적 이유와 노조를 분리시켜 경쟁을 조장하고 단결력을 약화시키려는 의도가 숨어있는 것이다"라고 주장한다.

교통혼잡으로 도로에 버려지는 비용이 연간 4조 8천 7백억원이나 된다. 여론조사에 의하면 교통혼잡의 이유로 '대중교통에 대한 정부의 투자부족'(52.2%)을 가장 많이 꼽았다.

문민정부 출범후 과거 군사독재에는 상상할 수 없이 많은 개혁조치가 취해진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러한 개혁이 국민들에게 얼마나 피부에 와닿을까. 이제는 개혁이 국민이 직접 느낄 수 있는 개혁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교통문제는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번에 지하철노조는 '고통분담(?)'이라는 이유로 임금인상안 3%에 합의하였다.

하지만 시민의 지하철이 되기 위해 노력한 이번 지하철노조의 노사분규는 '시민을 위한 개혁조치가 무엇인가'에 대한 많은 의문점을 던져준다.

<신동헌 기자>

인터뷰

6공 정치수배 해제를 위한 외대 도우미

정지연(정과 · 신방 4) 양을 만나

지난 8월9일(월) 30여명의 6공정치수배자들이 수배해제, 양심수 석방, 국가보안법 철폐를 외치며 연세대에서 농성에 들어갔다. 과거 군사독재 정권시절 조국의 민주화를 위해 투쟁한 그들은 아직도 창살없는 감옥이라 일컬어지는 수배생활에 시달리고 있다.

수배학생들이 하루 빨리 교정으로 돌아와 같이 공부할 수 있도록 안보이는 곳에서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다. '도우미'라 불리는 이들중에 본교 정지연(정과 · 신방 4)양을 만났다.

▲도우미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수배자들의 뒷바라지를 해주기 위한 모임입니다. 즉 학내선전이나 집회, 서명운동 등을 합니다.

▲도우미 일을 하시면서 어려운 점이 있다면?

학생들의 힘을 모으기가 너무 힘들어요. 인식은 하고 있지만 시기상으로 다른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자신의 일로써 받아들이질 못하기 때문이죠.

▲동성에 돌입하고 한달이 넘었는데 정부의 입장과 앞으로의 전망은 어떠합니까?

검찰은 법의 형평성을 따지면서 '지수하면 선처하겠다'는 식으로 수배해제를 가장 강경히 반대하고 있어요. 정부도 뚜렷한 입장 없이 어중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요. 수배자들의 목표는 올해내에 무슨일이 있어도 '수배'란 딱지를 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여론을 불러일으켜 올해초에 수배자들과 친분이 있거나 이런일을 해오던 사람들이 모여 도우미를 만들었어요.

▲언제부터 이 일을 하시게 되었습니까?

91년에 6 · 3사건으로 많은 선배님들과 동기들이 수배, 구속 되었는데 그때 과학생회에서 여학생들을 중심으로 후원회 활동을 시작했어요. 그때 활동하던 사람들이 구속학생 해결과 학내의 인권을 지키기위해 지금의 '인권위원회'를 만들었죠. 저도 91년부터 구속된 선배님들과 동기들을 위해 이 일을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도우미에서는 어떤활동을 했습니까?

우선은 일반학생들이 6공정치수배자와 인식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선전전에 주력했어요. 학내활동으로는 본교 수배자들을 휴학처리 해주고 일주일 정도 도서관 앞에서 서명운동을 했어요. 얼마전에는 팡고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일일주점을 하고 라이터도 판매했어요.

그리고 다른 학교 도우미들과 같이 연세대에 지지방문을 가고, 수배자들과 축구시합을 하기도 했어요.

▲6공정치수배에 대한 학생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모든 학생들은 그들이 하루빨리 수배에서 풀려나서 함께 공부하기를 바라고 있어요. 어떤 학생은 아직도 6공수배자가 있느냐고 반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을 도와줘야 하는지를 잘 모르고 있어요.

"학생들이 수배자들을 위해 같이 고민하고 조그마한 참여라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어요."

▲동성에 돌입하고 한달이 넘었는데 정부의 입장과 앞으로의 전망은 어떠합니까?

검찰은 법의 형평성을 따지면서 '지수하면 선처하겠다'는 식으로 수배해제를 가장 강경히 반대하고 있어요. 정부도 뚜렷한 입장 없이 어중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요. 수배자들의 목표는 올해내에 무슨일이 있어도 '수배'란 딱지를 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여론을 불러일으켜 정부와 합의점을 찾는것이 가장 중요해요.

▲앞으로는 어떻게 활동하실 겁니까?

6공수배자들은 암울했던 군사정권시절 독재의 폭력앞에서도 조국 민주화와 통일을 위해 당당하게 싸우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이제는 수배의 고통에서 벗어나 인간답게 살고자 어려운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하루빨리 수배란 누명을 벗고 우리의 교정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저는 학생들이 그들을 위해 같이 고민해주고 조그마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끝까지 도와주고 싶어요.

<강민홍 기자>

기자의 눈

결초개법(結草改法)

"우리나라 노동법은 국가보위 노동법, 국가보위 노동법은 무식해. 이인제의 노동법은 눈치보는 노동법, 눈치보는 노동법은 허약해. 민주노조 노동법은 자주단결 노동법, 자주단결 노동법은 불법이래. 고쳐야써/ 고쳐야 써/"

경희대 노천극장에서 들려오는 노래가락 중의 하나다. 지난 18일(토) 5시쯤 이곳 주변에서는 지난번 한총련 출범식을 연상케 할 만큼 많은 사람들이 북적대었다. 여기저기서 민중가요 소리가 들리고 판매대에는 김밥, 음료수외에 북한술과 지리산 꿀도 있어 눈길을 끌었다. 또,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그림전'에서는 노동자들의 삶과 투쟁을 담은 그림을 선보였고 이곳저곳에서 원진레이온 투쟁과 한일개발 노동조합 해고자 기금마련 등을 알리는 목소리가 들렸다. 오늘의 행사 '93 노래판 굿 꽃다지'의 내용을 짐작하게끔 한다.

"지하철 공사 해고노동자 베일도 동지 아버님의 비관자살은 해고자의 고통이 해고자 가족으로 이어진 실례이며 해고노동자 가족의 고통이 얼마나 심각한 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노동법 개정의 필요성을 여기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어느 한 진행자의 말이다. 현재 제3자 개입금지, 복수노조 금지, 공무원 단결권 금지 등 노동악법을 개정하라는 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나 정부에서는 이번 정기국회 때 상정하기로 되어 있었던 노동법 개정안을 내년 초로 연기하였다. 그 이유는 '금융실명제 실시에 따른 사회경제적인 여파를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누구나 한번쯤은 가슴아픈 사랑을 해 보았을 것입니다. 저도 사랑하는 사람이 노동운동을 하다가 1년 가까이 감옥안에 있습니다" 노래 '창살아래 사랑아'를 부르기 전에 한 이 말이 분위기를 이끌었다.

이번 꽃다지 공연은 노동법 개정 투쟁의 자주적 단결권을 얻기 위한 것이니만큼 결의를 밝히는 내용이 많았다. "지난 87년 6월을 기억하십니까? 각지의 일터에서 일할 땐 약한 모습일 수도 있지만 1천만 노동자가 단결하면…" 연극 공연에서도 이런 모습을 볼수 있었다. 전국노동조합대표자회의 공동대표 권영기씨는 "노동악법과 국가보안법이 철폐되지 않는 한 김영삼의 개혁은 거짓이고 영터리일 수 밖에 없으며 진정한 개혁은 다름아닌 바로 우리들만이 할 수 있습니다"라며 최종 결의를 밝혔다.

황소 울음소리를 내며 같이 춤을 배우고 '단결전노대'란 노래를 부른 것은 여러 들꽃들의 몸음이란 뜻의 꽃다지의 의미를 살린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노동법 개정 투쟁도 모두 함께, 황소처럼 느리지만 꾸준히 해야 함을 우리 모두에게 인식시켜 주었다.

<조지훈 기자>

통역대학원 학생모집(주간)

1. 모집과정 및 인원 : 석사학위과정 ○○명
2. 모 집 학 과
   가. 한국어번역 · 통역부(2년제) : 한영과 · 한불과 · 한서과 · 한독과 · 한일과 · 한중과 · 한아과 · 한노과
   나. 외국어번역 · 통역부(3년제) : 영불과 · 영서과 · 영독과 · 영노과 · 영일과 · 영중과 · 영아과
3. 시 험 과 목
   1차시험 : 한국어 · 공통영어 · 전공외국어
   2차시험 : 전공외국어 번역작문 · 구술시험
4. 원 서 교 부 : 1993년 10월 18일(월)－10월 30일(토) 13까지
5. 접 수 : 1993년 10월 22일(금)－10월 30일(토) 13 : 00 까지
6. 시 험 일 시 : 1993년 11월 6일(토) 오전 10시부터

※본 대학원은 국내에서 개최되는 각종국제회의 및 행사시 필요한 회의통역사와 다국적 국제정보교류에 일익을 담당할 번역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교육기관임.
※석사학위취득자는 본 대학교 박사학위과정 입학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
◎기타 상세한 것은 본 대학원 교학과에 문의바람.
(전화 963－0558, 961－4113)
◎주소 : 130－791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270(휘경전철역앞)

한국외국어대학교 통역대학원

델라웨어대 동계 연수 안내

1. 연수조건
   －. 연수과목 : 영어
   －. 연수장소 : 미국 동부 소재 University of Delaware
   －. 연수기간 : 1994년 1월 2일(일요일)～2월 13일(43일간)
   －. 수업시간 : 주당 24～26시간(주말제외)
   －. 반평성 : 영어시험 성적에 따라 등급별 배치
2. 소요경비
   －. 수업료 및 부대비용 : USD 2,190－
   －. 소속비
   (여권, 비자대 포함등) : USD 300－
   －. Tour 및 항공료 : USD 2,280－
   ＊총 예상경비 : USD 4,770－
3. 학생 선발 및 모집
   －. 재학생으로서 소속학과장의 추천을 받은 자
   －. 선발인원 : 선착순 30명 정도
   －. 지원서 접수 : 1993. 10. 5～11. 5(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09 : 00～17 : 00)
   －. 지원서 배부 및 접수 : 각 학생처 학생과
4. 학점인정 및 절차
   －. 델라웨어대학교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 후 취득한 영어성적은 본 대학교 교과과정에 있는 교양영어, 제2영어, 교양선택 및 자유선택과목의 이수학점으로 대체 인정하여 "해외영어연수"로 동재된다.
   －. 인정학점은 1994학년도 성적 산정시 제한 학점의 범위내에서 본인의 의사를 참작하여 최대 3학점으로 대체 인정할 수 있다.
5. 기타사항
   －. 최종 선발 후 학생처에서 시행하는 사전 교육을 이수하고 소정의 서약서를 제출한다.
   －. 선발된 학생에 대한 여권 및 비자 발급 관계는 학생처에서 일괄 수행한다.
   －. 연수활동 기간동안 연수를 감당할 수 없거나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학생은 인솔교직원의 재량으로 연수 도중 귀국 조치한다.
6. 주관 부서 및 문의처
   －. 서울캠퍼스 학생처 학생과 : #961-4033, 4035
   －. 용인캠퍼스 학생처 학생과 : #0335-35-4033, 4034

학 생 처 장

93년도 예비군 기본 교육 실시

93년도 대학 직장예비군 기본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니 빠짐없이 참석하기 바랍니다.

－아 래

1. 교육일정
   1차 : 1993. 10. 26(화)－10. 27(수)
   동양학대, 사회과학대, 자연과학대
   2차 : 1993. 10. 28(목)－10. 29(금)
   서양학대, 인문대
2. 교육장소 : 보병제 5171부대 3대대(용인읍 운학리 교장)
3. 교육비대상자
   가) 93년도 전역한 예비군
   나) 지역에서 16시간 이상 이수자
   다) 미필 보충역
4. 교통편
   서울거주자－양재동에서 07 : 30출발
   성남, 모현, 기숙사－학교에서 08 : 10출발
   용인, 수원 기타－용인 터미널에서 08 : 30출발
5. 유의사항
   가) 훈련통지서는 공고로 대신함.
   나) 규정된 복장 착용(불량자 귀가조치 함)
   다) 신분증 반드시 지참
   라) 중식은 각자 지참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비상계획관실로 문의바람

용인캠퍼스 예비군 대 대 장

외대, 그 작은 이야기 <다섯번째> — 이강혁 4대 총장편

사립학교법 개악으로

실권잃은 총장

이강혁 총장은 외국학종합연구센타 건립을 계획, 이를 위해 후원회를 설립하고 모금운동 (5억여원)을 열심히 벌였다.

보도기획

한국외국어대학교 제4대 총장 이강혁(법학과) 교수. 한번쯤 본듯한 인물이지만 본교생중 복도에 지나치는 총장을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아니 본교총장이 이강혁교수라는 것 조차 모르는 이도 가끔 접한다. 입학식등 총장을 볼 수 있는 공식적인 행사는 물론 열린 공간이 없기 때문이다.

90년 3월, 학원은 등록금투쟁(이하 등투)의 열기로 달아올랐다. 학생들과 협의를 거치지 않은 인상결정에 총학생회는 등록금고지서를 반환하는 적전으로 맞섰다. 등투가 한창 진행중이던 3월17일 박필수 전 총장의 입각에 의한 갑작스런 사임으로 이강혁 당시 부총장은 총장직무대행으로 데뷔한다. 학생들의 단식, 등록금 자체납부, 총장실 점거농성 등으로 이어진 90년 등투는 6.63% 인상, 용인 지입제버스 20대 증차에 합의한다. 그러나 3년이 지난 현재 지입제 버스는 8대에 불과하다. 해마다 계속된 등투에서 91년에는 학생들의 등록금고지서 탈환에 대비, '고지서는 제일은행 종로지점에서만 배부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돌리는 헤프닝을 연출했다. 지난해에는 학생회로 등록금을 납부한 1천8백여명의 학생들 가정으로 제적통보를 전보로 전한바도 있다. 올해 등투가 힘을 발휘하지 못하긴 했지만 이총장이 직무중 가장 어려웠던 과정으로 지적할 만큼 홍역을 치게되면서 부터이다. 그의 취임 직후 개악된 사립학교법으로 인사권, 징계권이 재단 이사장에게 고스란히 넘어감으로써 고유의 권한이 축소되었다는 평가이다. 최고 결정권의 법주는 아니었다. 즉 실제 재정과 관련된 모든 업무와 권한은 재단이 가지고 사안에 대해 지침을 전달하고, 총장은 그 지침에 맞게 관철시켜야 하는 재단의 방패역할만을 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노조 유기찬 조합장은 "92년 인사권 문제를 둘러싸고 27일간 계속된 파업에서 이를 확인했다"며 인사권의 재단복속을 배제하는 사립학교법의 개정을 촉구했다.

단체협상 마무리 과정에서 더 이상 진전이 없게 됐다. 실무 책임자인 총장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광장동 극동아파트, 약10일동안 총장실에 모습을 보이지 않은 총장을 찾으러 노조측 대표들이 집까지 찾아 나섰으나 총장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후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당시 이총장은 총장실을 떠나 호텔에서 집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동투와 노조와의 단체협상 등 여러 학내문제를 해결하는 스타일과 관련, 보직교수들은 그의 별명을 '제 1, 2방안', 학생들은 '대사(大史)'라고 칭한다. 90년말 학생들이 모 교수의 퇴진을 요구할 때 "학칙에 총장이 교수를 퇴진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는 한마디로 법학박사로서의 체면을 세우며 한달간 지속된 이 문제를 매듭지었다. 임기동안 이총장은 각종 제도와 규정들을 정비하게 되는데 학생들은 "사문화 되다시피한 규정들을 부활, 학생들의 탄압도구로 활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총장이 법학과 교수인 것과 관련, 여학계 교수들은 외대의 전통과 특성인 언어계열 발전에 덜 신경을 썼다고 주장한다. 취임이후 '외국학종합연구센타' 건립을 계획, 후원회를 설립하여 모금운동을 벌이는 등 나름대로 노력을 했으나 역부족이라는 평가이다. 이와 관련해 한 교수는 "외대에서 외국어교육연구소를 폐지한 것은 치명적인 오류이며 버마어·몽고어과 등의 신설 필요성에도 교육부의 승인을 못받은 것은 노력이 부족했던 탓"이라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수도권 정비법과 이공계열 육성정책과는 별도로 건국대, 부산외대에서 히브리어과, 버마어과가 각각 신설된 것을 증거로 제시했다.

순항을 계속하던 이총장에게도 위기는 있었다. 정원식총리 함의시위와 관련 8명의 학생들을 제적시키고 일부 국무위원의 '폐교경고'에 총리앞에 머리숙여 사죄까지 하게된다. 이 사건과 관련 사표를 제출하지만 재단이사회에서 반려되고 대신 양캠퍼스 학생처장만 그만두게 된다.

서울캠퍼스 부총장을 맡고 있던 90년, 박필수 전 총장이 갑작스레 입각하면서 발생한 총장의 공백, 전임지의 전여기간의 이행이라는 논란속에서 이사회 만장일치로 선임되어 4월14일 취임식을 가진 이강혁 교수. 퇴임 6개월을 앞두고 이 총장을 바라보는 시각은 곱지만은 않다. 학생들에게는 전입금 확대, 외대설립, 교통문제 해결 등이, 직원들에게는 대학발전위원회나 직원의 대표기관을 놓고 논란을 벌이는 등 전반적으로 지키지 못한 약속들이 낮은 점수를 주게 하는 요인들이다. 그동안 유명무실했던 교수협의회였지만 개인적으로 교수들은 보직의 독점과 평교수와 보직교수들 사이의 교류가 충분치 못한 점을 지적한다. 1주에 하루도 출근을 못하고 있는 용인캠퍼스에 대한 업무도 양캠퍼스를 포괄하는 총장으로서 지위확보를 위해 남은 과제이다. <임실은 기자>

미진하나마 다섯번의 '외대, 그 작은 이야기'를 마침니다. 어려운 중에도 관심속에 도와주시고 지켜보아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대학부>

각종 제도와 규정 정비에 공헌

향후, 합의사항 이행에 주력해야

후배에게 물려줄 외대의 모습은(5)

연구역량 확충, 외대 중흥의 돌파구

지금의 상황, 즉 외대은 '레벨 다운' 현상에 고민하는 외대인들이 많다고 한다. 학력고사의 커트라인이 해를 거듭할수록 낮아지고, 개교 초기에 가졌던 외국어 전문교육으로써의 외대의 특성이 타 대학과 비교해서 점점 희석되어졌기 때문일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외대 중흥의 돌파구가 될 수 있는 것은 외국학을 비롯한 학문적인 연구역량의 강화와 교수들이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일일 것이다.

그러나, 구상안이 이러한 외대의 제도와에 합당할 만한 연구역량 확충부분에 미비하다는 지적의 소리가 높다.

구상안은 계획기간중에 교원수를 법정 인원수에 근접하도록 충원한다는 것을 제시했다. 본교의 교수 정원은 내·외국인 교수를 모두 합치 약 3백명 정도이다. 이에 따라 교수 학생 비율은 1 : 40정도이다. 법정인원수는 우리 학교에서는 약 4백여명 선의 교원을 보유해야만 도달할 수 있다. 평균적으로 교수 1명을 채용하려면 학교에서는 연간 약 3천만원의 비용이 드는데 구상안에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재원확보 방안을 명시해 놓지 않아 교원충원방안이 빛좋은 개살구가 돼 버릴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또한, 근접하도록 충원한다는 것은 현재의 1 : 40에서 얼마만큼 수치가 낮아지든 간에, 즉 예를 들어 1 : 40에서 1 : 39로 낮아져도 이것은 법정 인원수에 근접한 것이기 때문에 명확한 선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애매한 표현으로 추궁을 회피한 것으로밖에 해석될 수 밖에 없다.

교수충원제도에 있어서도 현재 상황에서의 모순점을 간과했다는 지적의 소리가 있다. 본교에서 신규교수 임용권은 이사장에게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의 전 교수가 참여하여 신규교수채용을 담당할 수 있는 협의체 구성과 신규교수에게 배우게 될 학생들의 평가도 알아보기 위해 공개 강의를 실시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지금의 모순점을 해결하는데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 부분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교수의 임용기간 제도운영에 계약적 개념 도입이다. 계약적 개념이라는 것은 교수를 일정기간을 정해 교용하고 기간이 만료될 때마다 다시 계약을 맺는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재계약시에 대구대, 상지대 등의 경우와 같이 학교측의 의사를 반하는 행동을 한 교수는 얼마든지 탈락되어 다시는 본교에서 가르칠 수 없게 될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교수의 학문적 업적을 평가하는 데에도 미흡한 점이 지적된다. 구상안에서는 객관적 관리제도를 확립하고 이에 따른 업적기록양식을 개발하여, 교수업적 총람을 매년 발간한다고 제시했다. 교수자신이 직접 업적 기록을 제출하는 것이다. 교수의 학문적 업적은 단순히 자신의 업적기록뿐 아니라, 배우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명확히 알 수 있을 것이다. 대학당국은 올해부터 실시되는 강의평가제를 바탕으로 한 학생들의 평가도 값이 반영할 수 있는 제도 마련에도 고심해야 할 것이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연구역량 확충은 외대의 사활이 걸린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외대의 부흥과 외대의 몰락이 이번의 5개년계획안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는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대학당국은 이부분의 중요성을 다시한번 각인하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제도마련에 고심해야 할 것이다.

<이승호 기자>

학생자치기구 점검—대생협

먼저 대학생활 협동조합(대생협)의 간략한 역사를 살펴보면 대학생협 운동은 학생복지위원회 활동을 하던 사람들로부터 제기되었다. 학내 구성원들이 민주적 의사를 모아 물질적, 정신적 생활조건을 개선하고자 했던 노력의 결과로 88년 서강대에 최초로 대생협이 만들어 졌다. 대생협 연합이 결성된 후 생협에 대한 내용이 파급되자 89년 이화여대, 90년 본교, 91년 조선대, 경원대 등지에서 대생협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그러면 이야기의 초점을 본교로 맞추어 보자.

현재 본교의 대생협은 90년 3월 22일 대학사회의 문화공간을 상업적 이윤의 찌든 모습에서 구해내고 다함께 더불어 사는 대학상을 구현한다는 취지로 결성되었다.

이러한 창립 취지하에 대생협이 현재 벌이고 있는 사업으로는 학생들이 필요로 한는 물건을 공동구매하여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고 있는 각 매장과 학내의 모든 자판기, 그리고 학내 6개의 식당중 3개를 운영·관리하고 있다. 생활적인 면에 있어서도 생활의 주변을 우리것으로 가꾸자는 목적으로 의식, 생활, 사회부문에서 생활운동을 벌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개량한복, 한글표기 옷 등의 우리 옷 입기, 외제품 안쓰기, 자원재활용운동 등이다.

대생협은 90년도부터 방학중에 본교생과 타대생을 포괄한 어학연수를 주최하고있는데 주번의 자연경관과 외국인 강사의 실용적인 회화수업으로 정평이 나있다.

대생협운영으로 발생된 수익금은 조합원이 출자한 금액에 대한 배당금 지급과 제학생의 복지시설 확충, 장학금지급, 문화사업, 특강실시 등으로 쓰여지고 있다.

대생협의 체계는 현재 1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사회와 이사장인 조합장, 그리고 부조합장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그 아래로 5개부서를 두고 있다. 회계와 운영에 대한 감시·건제를 위한 감시제도를 두고 있으나 전문성이 결여되고있어 실질적 활동은 없는 상태이고 내년쯤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생협의 운영은 현재 전체 학생수의 15%에 달하는 7백여명의 조합원이 선출한 임원이그 실무를 담당하고 있다. 조합의 가입방법은 입정의 자격과 절차가 마련돼 있다. 자격조건은 본교생이어야 하고 절차는 조합이 정한 가입 신청서에 가입금과 출자금을 기재, 금액을 첨부하여 조합에 제출하면 된다. 현재 조합원이 부담해야 할 출자금은 2천원이며 가입금은 5백원이다.

더불어 사는 대학상 구현

회계문제 해결이 과제

이상으로 대생협의 전반적인 면을 간략히 살펴보았다. 현재 대생협은 회계작성에 있어 전문성이 결여된다는 점에서 적지않은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대생협은 회계원의 전문적인 실무배양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대학당국이 제기한 대생협에 대한 문제는 일방적인 대생협지치권 부정이 아닌 공정적 시각을 전제로 하여 대생협과 함께 해결하려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상준 기자>

외대사랑과 반성문

○…'외대사랑 과대회'에 무기징역, 거기다 참회록?

사연인즉, 지난 16일(수) 서울캠퍼스 총학생회장 징계문제로 재단사무실로 항의방문을 갔던 학생들이 '간부를 징계시킨 건 외대가 자존심 있는 학교이기 때문', '반성문을 쓰면 징계를 철회시켜 주겠다'는 모 처장님의 말말(?)에 아연실색한 것이 그것.

교수님, 그럼 외대사랑 과소회는 위인전을 써야 되나요?

○…민초들이 매일같이 이용하는 지하철에 푸시맨보다 더 부서운 것들이 많이 도사리고 있다길래 직접가서 살펴본즉,

가끔씩 오래된 레일이 벰처럼 구불구불해지고 한강철교에는 빵꾸가 여러군데 나있어 본의아니게 단체로 사망할 가능성도 있다는데.

게혁인지 뭔지 하느라 정신없는 어르신들, 돈많이 드는 지하철 1·2기 분리운동도 좋지만, 우리 지하철이 은하철도 999가 아닌이상 레일이라도 좋게 깔아주심이 어떨런지.

○…어제 학교를 갔더니 깡통이 무너진댄다. 내 친구는 충격으로 깡통보다 먼저 쓰러졌다. 깡통이 어떻게 무너지지? 우리가 단단하게 추여으로 쌓아올렸는데, 아마 그걸 부술수 있는 불도저는 없을꺼다. 좁쌀만한 땅덩이에서 뗄데가 어디 있다고 정말 웃긴다. 사발면에 달걀풀어서 먹고 싶을땐 어디서 먹지, 동문회는 어디서 모이지. 우리는 순식간 아지트를 잃어버린 꼴이잖아. ○○는 나쁘다.

○…모두들 눈이 휘둥그래져 크로니클 무슨 일인지 알아본즉 요즈음 총장어르신 내들이 제산을 공개했다는데.

이 광경 지켜본 어떤 한 학생 왈(曰),

"돈이 쌓여가는 소리에 민초의 원성이 높고 그들의 술과 고기는 민초의 피와 기름이라."

아~ 지금의 살찐 스승님네들보다 예전의 말라빠진 말꾁발이 그리워라.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했던 대한민국 제1대 대통령의 얼띨 웅변이 크로니클자 귀를 맴돌아.

정기 학생총회때 조출한 노천풍경, 이름이 기명된 의자가 전체대표지회의 끝날때까지 기다리던 모습, 비상총회를 외면한 조합원들, 동구어대 단대분리를 간부에게 떠밀기는 동구어대인들까지.

물을 떠난 물고기처럼 학생들 참여없는 학생회는 기진맥진, 우리는 영락없는 동가루.

뭉치느냐, 마느냐

비둘기 칠판

■고향길, 같이갑시다.

9월 28일(화), 추석 귀향길에 승용차를 함께 타실 분을 찾습니다. 방면은 의왕, 함안, 창령방면으로 가시는 분은 연락주세요.

연락처 : 외대학보 기자실(이문, 왕산 모두)

이문벌

■초대합니다.

전국 13개 대학 서어인들의 축제인 돈키호테 배가 화려한 개막제를 시작으로 2박 3일간 이문벌에서 열립니다. 이문벌 서어인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일시 : 9월 24일~26일

장소 : 이문벌

<전진 서어과 학생회>

■이태리어과 종합예술제

일시 : 9월 25일 늦은 2시, 5시

장소 : 대강당

<이태리어과 학생회>

■'새물결' 정기공연

제목 : 불량제품이 부르는 희망노래

일시 : 9월 23일(목) 늦은 5시 30분

장소 : 노천극장

<노래모임 새물결>

■제17회 정기연주회

일시 : 9월 23일 늦은 6시

장소 : 소강당

<고전기타반-취현회>

■신입회원 모집

2학기를 맞아 새로운 단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신입회원 모집과 더불어 무료시술(요통, 신경통, 소화불량, 두통 등)을 할 예정이니 관심있는 분은 노천 지하로 오세요.

일시 : 9월 20일~24일(이른 10시~12시, 늦은 5시~7시)

장소 : 노천지하 온누리 지치방

<온누리 자치방>

■ 일일찻집

일시 : 9월 22일(수) 이른 10시~늦은 8시

장소 : 덕시랜드 2층 FOREIGNER

<외대합창단>

왕산골

■저 군대갑니다.

기상이가 오늘 군대갑니다. 모두들 건강하시기 바래요.

<HU 90>

■단대분리, 이제 그 시기가 왔습니다.

· 단대분리는 7백 청춘의 희망찬 새날입니다.

<제 6대 체코어과 학생회>

· 부총장님은 비도덕적이고 권위 주의적인 타성에서 벗어나야 합니 다.

<제6대 유고어과 학생회>

· 이제 더는 못기다리겠습니다. 부총장님! 우리 함께 동구어대 문제 해결하지구요.

<제7대 루마니아어과 학생회>

· 우리의 요구는 결코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닌, 외대발전을 위한 것입니다.

<제10대 헝가리어과 학생회>

· 폴란드어과 1백 20학생은 어떠한 태도도 보이지 않고 있는 학교측의 모습을 보며 더이상 바라보지 않고 달려갈 것을 결의합니다.

<폴란드어과 운동본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김용덕 동지의 조국사랑에 대한 열정으로 자주학원, 경인총련 건설을 기필코 이룩해 내겠습니다.

<조국사랑 선봉대>

■돌컴 컴퓨터 전시회

일시 : 9월 22일~24일

장소 : 학생회관 전시실

<돌컴, 이익광고협의회>

■신규동아리 등록하세요

기간 : 10월 4일까지

장소 : 학생회관 2층 동아리연합회

인준 : 10월 6일 대표자회의

<제11대 동아리연합회>

■이전합니다.

화장품매장이 승차장으로 이전했습니다. 시중판매 가격보다도 훨씬 저렴한 학내 매장으로 오세요

<화장품 매장>

동문회

중화고

이문, 왕산 중화고 인들 모두 모입시다.

일시 : 9월 25일(토) 낮 12시

장소 : 서울캠퍼스 시계탑

서울 총학, 정기학생총회 개최

침체됐던 외대발전운동에 돌파구 계기

각단대 총회, 정총전에 열려

서울캠퍼스 각 단과대 학생회는 22일(수) 정기학생총회를 맞아 정기총회 이전에 단대별 총회를 연다. 각 단과대는 총회를 통하여 2학기 사업계획과 학생회 운영원칙을 학생들에게 알리고, 총학생회 2학기 기조인 총장선출, 5개년 계획, 수배·징계철회 등을 학생들에게 선전할 예정이다.

서울어대 학생회는 '학생회 건재 과시'를 핵심 기조로 내세우고, 총장선출과 수배·징계철회, 단대발전위원회의 강화에 주력할 것이며, 이를 오늘 21일(화) 서울어대 총회에 반영할 것이라 한다.

각 단대는 19일(일) 있었던 정기 확대 운영위원회에서 결의했던 사안들을 단대 사업에 반영해 총회를 통하여 학생들을 정기학생총회에 참석하도록 유도하고, 이후 2학기 외대발전운동을 주도적으로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총학생회는 2학기 정기학생총회의 안건을 '외대인의 날' 홍보와 기타 사업보고, 민주총장선출과 5개년 계획, 수배·징계철회를 학생들에게 알려내고 이후에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으로 상정하고 있다. 내일 있을 총회에서는 중심적으로 징계철회요구를 토화선으로 음직일 조짐을 보이고 있다.

내일 정기총회는 각 단대총회를 바탕으로 하여 1학기 침체되어 있었던 외대발전운동에 돌파구를 마련하게 될 자리일 것으로 보인다.

동구어대 부분파업 돌입할 듯

'폭풍제'통해 단대분리 다짐

동구어대 학생들의 대동한마당인 '폭풍제'가 오는 22일(수)부터 교정 곳곳에서 개최된다.

단위학생회·소모임강화, 동구어대 7백학생들의 단결을 목표로 치뤄지는 이번행사는 단체줄넘기, 모물찾기, 민속놀이, 번안민중가요제 등의 행사들이 진행된다.

행사준비에 여념이 없는 동구어대 학생회장 김기우(체코4)군은 "지금껏 계속 진행돼온 단대분리 투쟁의 중요한 과정이고 총회의 정이다"리며 "이번 대동제를 계기로 동구어대 7백학우들의 단결된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고 행사의의를 밝혔다.

또한 동구어대 학생회는 대학당국의 동구어대 단대분리 문제에 대한 부성의함에 대하여 부분파업을 결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언어학과 학생회 학술제 개최

언어학과 학생회는 오는 22일(수)부터 24일(금) 까지 인문대 403호실에서 언어학과내 3개학회가 주관하는 '언어학과 학술제'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제에서는 방언을 연구하는 '방언연구회', 전산언어학을 연구하는 '틀과 꼴', 독서토론회 '도틀이'라는 3개 학회가 각각 학술발표회를 갖는다.

서울 고전기타반 연주회 개최

서울캠퍼스 고전기타반 '취현회'는 제17회 클래식 기타 정기연주회를 오는 23일(목) 오후 6시 본교 대강당에서 갖는다.

이번 연주회에서는 브람스 최초의 실내악곡인 현악 6중주 작품번호 18번 B♭장조 2악장을 합주곡으로 연주하는 등 그외 다수 곡을 연주할 예정이다.

고전기타반 회장 유종현(정과·행정 2)군은 "정기연주회 연습을 통해 서로간의 친목도모와 연대감을 가질 수 있어 좋았다"며 "학생들에게 우리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라고 행사취지를 밝혔다.

인문대 정기학생총회 개최

체육대회 통해 학자승리 다짐

인문대 학생회는 21일(화) 2학기 정기학생총회및 체육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회에서는 1학기 사업보고와 2학기 사업계획안중, 1학기 학생회 결산보고 등의 안건이 토론된다. 인문대 학생회는 총회 자료집과 대자보를 통해 '이동학생회', 가을 농촌활동, 노동자 학생들의 연대를 위한 지남전자 노동조합과의 자매결연, 단대 노래패·풍물패 건설, 매주 목요일 영화상영 등을 2학기 사업계획으로 밝혔다.

이어 체육대회는 차전놀이, 릴레이 경주, 씨앗기 파구, 여자 발야구등 다양한 종목의 경기가 펼쳐진다. 이번 총회와 체육대회를 준비중인 인문대 학생회장 이승범(철학 4)군은 "왕산의 현안 학원자주화 사업에 대해 학우들과 함께 공유하고 경인총련건설에 대한 교양과 더불어 학우들에게 좀더 친근하게 다가가는 거듭나는 학생회가 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행사의의를 밝혔다.

전국고등학생 외학 경시대회 실시

종합적인 외국어 능력 평가

본교 주관으로 '전국 고등학생 외국어 학력 경시대회'가 지난 18일(토) 열렸다.

고교생들의 외국어 능력 함양과 올바른 외국어 교육의 방향 제시를 위해 개최된 이번 행사는 각 시도별 예선을 거쳐 선발·추천된 고등학교 1, 2학년 총 4백 10명의 제학생이 참가하여 영어, 독일어, 불어, 일어, 중국어, 서반이어 등 총 6개 외국어 부문별로 청취력, 독해력, 작문력, 구사력 등의 평가를 통한 종합적인 외국어 능력을 평가하는 자리가 되었다. 동상이상 입상자들은 본교에 지원시 가산점을 부여받게 된다.

용인동연 신규동아리 모집

10월4일까지 접수

용인캠퍼스 동아리 연합회(동연)은 신규동아리 등록절차 및 일정에 대해 발표했다.

동연은 대자보를 통해 10월 4일까지 원서마감일로 정하고 구비서류로 등록원서와 분과장 추천서를 정했다. 신규동아리 심사는 10월 6일(수) 동연 전체 대표자회의를 통해 이루어진다.

국악반 '얼소리' 연주회 개최

서울캠퍼스 국악반 '얼소리'는 오는 24일(금) 오후6시 본교 대강당에서 제9회 연주회를 개최한다.

이번 연주회는 대풍류 수연장지곡을 시작으로 단소 제주타령, 세악연불타령으로 이어지며 총 8마당의 순서로 집행될 예정이다.

얼소리 회장 음두오(동양·터키어 2)군은 "이번 연주회를 통해 서구문화속에서 우리것을 찾고 전 외대인을 상대로 국악의 작은 씨앗을 심어주며 화원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있다"며 연주회의 의의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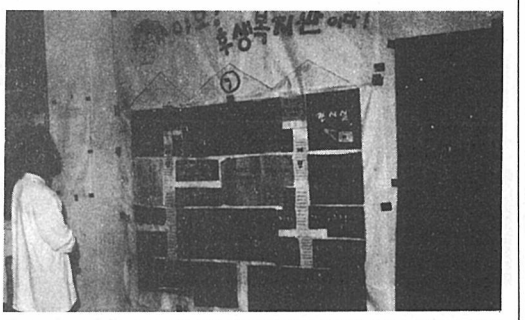
김용덕군 사체 발견

27일 위령제 계획

동아리 연합회 수련회도중 실종됐던 사월문학반 회장 김용덕(서학·노어 4)군의 장례가 지난 15일(수) 속초 의료원에서 치뤄졌다.

김군의 사체는 지난 14일(화) 실종된 장소인 낙산해수욕장 주변에서 해상경비대 구조반에 의해 발견됐다. 이소식이 알려지자 1백여명의 학생들이 속초로 내려가 영결식에 참여하고 김군의 죽음을 애도했다. 또한 학생들은 학교로 돌아오는 도중에 92년 동아리 연합회 부회장이였고 용인캠퍼스에서 문학예술운동을 펼쳤던 김군의 뜻을 기리는 약식 추모식을 거행했다.

'왕산 89학번 민주동우회'는 오는 27일(월) 용인캠퍼스 교정에서 김군에 대한 위령제를 열 계획이다.



"사람답게 살아보자" 용인캠퍼스 각단위 학생회는 17일(금) 열린 '후생복지관 설립을 위한 공청회'에서 단위 요구안에 맞는 조감도를 직성·설명했다. 학생들은 이후 대학당국에 후생복지관 건설을 강력히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부>

'94 입시 기본계획 확정

재입학 걸림돌, 학칙 14조 삭제

94학년도 본교 입시기본계획이 확정됐다. 입시방안은 특차 20%와 전기 80%의 비율로 선발되며 내신성적 40%와 수학능력시험 성적으로 진행하게 된다. 사범대학의 경우는 수학능력시험 성적이 50%, 그외는 60%씩 적용되며 사범대는 인성검사와 면접고사 성적이 각각 5%씩 반영된다.

논란을 벌여온 전형일자는 특차가 93년 12월 23일(목), 전기입시는 94년 1월 10일(월) 면접을 실시하기로 어제(20일) 열린 전체교수회의에서 확정됐다.

영역별 가중치로는 인문계대학에 지원하는 자는 외국어영역(60점 배점) 취득점수의 50%를, 지연과학대에 지원하는 자는 수리·탐구영역(150점 배점)에 20%를 가산 전형한다. 그외 제2지망 제도는 없으며 특차모집 자격은 수학능력평가의 상위 6%이내인 자에게만 주어진다.

이날 회의에서는 재입학의 범위를 제적후 4년을 경과하지 않은 자에게만 국한하여 문제되어온 학칙 14조를 삭제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재입학 대상자의 범위가 넓어졌다.

용인극단 연결

'신의 아그네스' 공연

용인캠퍼스 연극동아리 '극단 연결'은 20일(월) 부터 24일(금) 까지 도서관 4층 세미나실에서 '신의 아그네스'라는 제목의 정기공연을 갖는다.

존필미어 원작에 이철기 기획, 장재웅 연출로 상연되는 이번 공연에 대해 관계자들은 학생들의 폭넓은 참여를 호소하고 있다.

전국 경정과 학술제 연구활동 활성화

경영정보학과 학생회는 전국 경영정보학과 학생연합회 주최로 경기대학교에서 열린 제5회 경영정보학과 학술제에 참가했다. 지난 18일(토) 부터 19일(일) 까지 개최된 이번 학술제는 전국에 및 안되는 경영정보학과 학생들의 친목을 도모하고 학문연구활동 활성화를 위해 치뤄졌다.

외국인 교수 초청

통·번역에 대한 강의

셀레스코비치(Seleskovitch), 레더러(Lederer) 교수 초청강연회가 오늘 21일(화) 부터 통역대학원 주최로 본교에서 열린다.

오늘 21일(화)은 통역과 번역의 차이(셀레스코비치 교수), 언어지식만으로는 왜 통역이 가능하지 않는가? (레더러 교수) 라는 주제로, 내일 22일(수)은 통역에서 'meaning'의 의미는? (셀러스코비치교수), 통역번역·지식과 이해 (레더러 교수) 라는 주제로 오후 3시부터 각각 본교 대강당에, 시청각건물 210호에서 개최된다.

배병성군 24일 1차공판

한총련, 무죄석방 운동 벌일 계획

6.12 김춘도 순경사망 사건 혐의로 구속, 수감중인 배병성(사회·경정 4)군의 심리 공판이 오는 24일(금)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다.

이에 배병성군 무죄석방과 불법·고문수사 근절을 위한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 소속 손영준군은 "배군의 무죄를 법정에서 반드시 입증하고 아직도 지랭되는 경찰의 불법, 고문수사근절을 요구하고 청년학생들의 정당한 통일운동을 매도한 관제언론규탄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대책위는 이후 한총련주도의 배군무죄석방을 위한 법정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동연 정기대표자회의 열어

2학기전망과 학자사안 등 논의

'93년 2학기 정기 동아리 대표자 회의가 지난 15일(수) 본관 326호에서 열렸다. 이번 대표자회의에서는 2학기 동아리 연합회(동연)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민주총장선출문제, 학생간부의 수배·징계 철회, 외대발전 5개년 계획안에 대한 동연의 입장을 밝혔다. 또한 오는 10월 30일(토) 개최하기로 결정난 '외대인의 날'과 동연내 분과 제편 문제, 동아리 백서 창간과 관련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고침>

본보 9월 21일자 611호에 게재된 동문회장기 쟁탈 배구대회 관련 사진기사에서 남자 배구우승팀을 '화란어과'에서 '영어과'로 바로잡습니다.

이사람

"아래로부터 준비된 외대사랑학교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외대사랑학교 상경대 준비위원 김부자(경제 2)양을 만나>

서울캠퍼스 상경대 학생회실. 남학생이 대부분인 이 단대에서 "내가 하겠다"고 앞장서서 열심히 뛰는 맹랄여성이 있다. 9월 13일 시작된 제3기 외대사랑학교 상경대 준비위원 김부자(경제 2)양이 바로 그 주인공이다.

"외대발전은 서울캠퍼스의 경우 단순히 저곡동으로 이전하거나, 시설을 잘 가꾸거나, 입학정원을 높이지는 것이 아닙니다. 청년으로서 당연히 받아야 하는 진인교육을 받고, 교육내용의 내실을 다져서 미래지향적인 대학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외대의 상황을 짚어보고, 학교와 재단에 대한 제반 문제인식을 하는데 역점을 두었던 것이 지난해 외대사랑학교였다. 그러나 이번 제3기 외대사랑학교는 보다 넓은 학생들의 참여공간을 마련하고 일방적 강연보다 깊이 토론하고 논의하는 장을 통해 지난 학기 활동의 평가와 함께 외대발전운동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며, 외대의 이상적인 미래상을 총체적으로 짚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고 한다.

또한 모두가 함께 준비하는 외대사랑 학교가 되기위해 6강의에 걸친 각 분야를 단위별로 1강의씩 맡아서 전문적인 연구와 진행방식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고 한다. "철저히 아래로부터 준비된 외대사랑학교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준비하고 진행하면서 사람들도 만나가며 서로간의 결속도 다지고 싶었구요."

중앙 집행부 회의, 각 단대 준비위원모임, 중앙회의, 분임토론 등 회의와 토론이 이어지고 바쁘게 뛰어다녔던 준비과정에서 과주체, 상경대 학생들의 도움과 격려의 힘이 컸다며 동료들에 대한 인사를 잊지 않는다.

"학우들은 지리만 마련하면 언제든지 모이기 마련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노력해야겠지요. 그리고, 언제나 함께하는 학우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사람들에게 어떻게 다가갈 것인가'가 가장 어려웠다고 말하는 그는 학생회 간부, 일반 학생으로 나누는 인식이 이런 걱정을 만든것 같다면서 빨리 고쳐야 한다고 말한다.

또, 이 행사의 홍보가 잘 되지 못했고, 다소 강의와 토론 내용이 어려웠던 것이 단점이라고 지적하는 그는 그러나 아무것도 하지않고 흘려버린 10년과 무엇이라도 노력한 10년은 엄연히 다르다고 강조한다. 이렇게 희망에 찬 모습이 바로 외대의 주인된 모습이 아닐까.

<김선아 기자>

서울 080 023
부산 080 052
대구 080 071
광주 080 061
대전 080 041
고객상담실 7007
우리자유로운기업

세계적 화학회사—럭키

합성수지사업
산업건재사업
생활건강사업
의약품사업
기초유화사업
정밀화학사업

럭키는 기초소재에서 정밀화학, 의약품, 항공우주산업소재 등 총 14개의 다양한 사업영역과 17개의 국내외 합작사 및 해외 현지법인 등 사업의 국제화를 통해 세계적 화학회사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럭키
LUCKY LTD.

● 화성품사업부 ● PVC사업부 ● 스티렌계수지사업부
● 엔지니어링프라스틱사업부 ● 폴리에틸렌사업부 ● 건축자재사업부
● 정식자재사업부 ● 산업자재사업부 ● 수송자재사업부 ● 생활용품사업부
● 화장품사업부 ● 정밀화학사업부 ● 카본사업부 ● 의약품사업부

지적재산권보호
우리상표 우리기술
밝아지는 우리경제

□영화평 — 'Dave(데이브)'를 보고

현대판 '왕자와 거지'

6공이 출범한 이후로 (노 대통령 취임 이후) 변화의 노정을 시작했던 것들 중 대통령의 교체와는 상관없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바로 '권위주의의 청산'일 것이다. 이를 가장 잘 말해 주는 것으로는 TV 코미디를 들 수 있다. 다시말해, 이른바 민주화 바람을 타고, 대통령을 포함한 몇몇 정치인들을 소재로 한 코미디들이 많이 나타났던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는 그 수준도 많이 향상되어, 마침내 단순히 정치인의 흉내를 내는 것에서 벗어나 시사문제와 정책까지도 커버하기에 이르렀다. MBC의 '단소리 쓴소리'는 그 좋은 예가 될 수 있으리라.

이와같은 '정치 코미디'는 구미에서는 매우 보편적이고 인기있는 장르로, 정치의 쇼비지니즘화라는 비난을 듣기는 해도 상술한 바와 같이 정치 민주화를 가늠하는 하나의 척도로 이용될 수도 있는 것이다.

비교적 민주적인 정치체계를 갖추었다고 할 수 있는 미국에서 이 '정치 코미디' 인기는 대단하다.

최근 개봉된, 정치 코미디 영화인 '데이브(Dave)'도 미국에서 줄곧 높은 순위를 유지했던 작품이다.

유명한 동화 '왕자와 거지'를 모티브로 하고 있는 이 영화는 대통령과 닮은 평범한 시민인 '데이브'가 대통령의 갑작스런 와병으로 인해 최고 통치자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면서 벌어지는 해프닝을 담고 있다.

대통령과 닮아 갑자기 대통령이 된 '데이브'

미국의 암울한 현 상황 반영한 정치 코미디

이러한 코미디적 요소도 좋았지만, 역시 가장 흥미로웠던 점은 이 영화가 은연중에 미국의 정치와 언론의 합수관계를 관객들에게 보여주려 한 것이었다.

감독인 '아이반 라이트만'은 이를 위해 미국의 실제 정치관련 TV 프로그램들과 카메오(특별출연, 이 작품에서는 윌리버 스톤, 제이 레노, 래리 킹, 아놀드 슈왈츠네거 그리고 많은 정치인들이 실명으로 잠깐씩 모습을 보여준다)를 적절히 이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기법은 영화의 실제감을 부가하는 효과까지 거두고 있다. 전작 '고스트 바스터즈'에서도 아이반 라이트만은 이러한 연출의 묘를 보여준 바 있다.

또 한가지 이 영화는 현재 미국의 고민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주고 있어 흥미롭다.

'데이브'는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이 혁신적인 고용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선포한다—데이브의 전적은 '직업 소개소 소장'이었다. 이 정책은 큰 환영을 받고 데이브의 인기는 크게 치솟게 된다.

문제는 여기에 있다. 아무리 영화 속이야기라지만 이것은 커다란 의구심을 불러 일으킨다. 도대체 그와같은 정도의 정책에 기뻐할 국민들이 어디 있겠냐는 것이다. 지나치게 작위적이라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와같은 이해할 수 없는 스토리의 영화가 미국에서 큰 인기를 끌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렇다. 이것은 영화에서라도 희망 또는 내일을 찾아야 하는 미국의 암울한 현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국가로 보면 '비애(悲哀)'임에 틀림없는 현실을 상업적으로 이용한 꼴이 되었지만, 사실 영화의 본질속에는 당연히 상업성이 내재되어 있으며, 이것이 하나의 여론 또한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이 작품은 충분히 보람이 있다 하겠다.

사실, '정치 코미디'의 기능은 이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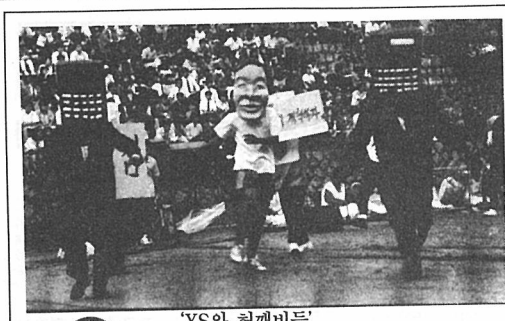
현재 한국에서는 이른바 개혁이 필처지고 있다.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정부에 대한 공정하고 올바른 비판·감시·감독기능인 것이다. 전술했듯 TV에서는 '정치 코미디'가 하나의 장르화되고 있다. 그러나 영화의 경우는 거의 전무한 상태이다.

과거와는 다르게 검열도 완화된 상황이고, 또한 미디어로서의 기능 수행과 새로운 소재의 개발이라는 측면에서도 정치 영화의 개척은 중요하다 아니할 수 없겠다.

마지막으로 덧붙일 것이 하나 있다. 이 영화에서 권위를 내세우기 보다는 국민들에게 직접 다가서려고 노력하는 '데이브'의 모습은 무척 인상적이었다. 사실 따지고 보면 국민들이 지도자에게 바라는 것은 매우 간단한 것인지도 모른다.

우리 정치인들 모두가 한번쯤은 이 영화를 보고 '국민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박 기 현
<정과·신방3>



'YS와 허깨비들'

파수대

지난 18(토), 19(일)일 경희대에서 열린 노래판 굿 꽃다지 공연중, YS가 노동자 탄압의 수단들과 함께 등장했다.
<사진부>

□공연평 — '제13회 대한민국 국악제'를 보고

우리판, 우리가락

최근 국악을 즐기는 사람들이 급속히 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악을 감상할 수있는 기회도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러한 국악감상의 기회 중에서 가장 권위 있는 자리라면 바로 대한민국 국악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올해에도 지난 11일(토) 부터 13일(월)까지 대전과 서울에서 국악제가 개최되었다. 대전에서의 행사는 엑스포의 일환으로서 열렸다고 한다. 국악을 즐기는 사람에게 흔치 않은 국악공연을 보게 된다는 것은 큰 즐거움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의 국악제는 나에게 즐거움보다 몇가지 새로운 국악의 자리매김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대한민국 국악제의 가장 큰 장점은 국악의 각 부문에서의 최고의 권위자들을 한자리에 모두 만나 볼수 있다는데 있다. 이번에도 김소희, 이매방, 김덕수씨등 이미 대중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국악인들이 대거 참여하였다. 정악과 민속악, 전통무용, 그리고 창작국악으로 구성이 되었는데 전반적으로는 민속악이 많이 편성되었다.

이번 국악제는 다채로운 구성과 명인들에 의한 진행이라는 장점이 있었던 반면에 몇가지 제고되어야 할 문제점도 드러났다. 첫째, 주최측의 운영상의 미숙을 지적할 수 있다. 초대권의 지나친 남발로 인해 입장시간이 지연돼 지정된 시간보다 행사 시작이 늦어졌으며, 입석 및 연주도중의 관객들의 출입은 전체 분위기를 상당히 어수선하게 만들었다. 둘째, 단시간동안에 지나치게 많은 프로그램이 편성되어 여유있는 감상의 무대가 되지 못했다.

이명희씨의 '홍부가 중에서 박타는 장면'이 공연되고 있는 도중이었다. 창이 한창 진행되고 있을때 관객석 한가운데에서 '얼쑤'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 순간 관객들의 시선은 그곳으로 집중되었고, 나는 순간적으로 답답했던 마음이 뚫리는 느낌을 받았다. 이 자그마한 사건은 그동안 우리의 살아넘치는 '판'을 잃어버리고, 서구식의 극장속에서 관객과 유리되고 박제화되어 버린 우리음악의 현실을 뚜렷하게 보여주었다. 원래 우리의 음악은 서양음악과는 달리 기존의 형태 속에 상황에 따라 개입의 여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여유있는 것이었다. 이러한 자유로운 음악정신이 일제에 의해 박제화 되어버린 뒤에 이것은 지금까지 국악계의 보수성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국악의 새로운 자리매김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먼저 이전의 고정된 틀을 조금씩 깨뜨리는 작업이 국악인들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특히, 민속음악은 서구식의 무대라는 개념을 깨뜨리고 우리의 '판'을 회복하는 노력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 국악제는 국악계의 가장 큰 행사로서 국악의 선진적인 모습을 창조하고 제시해야할 의무가 있는 행사이다. 어느덧 대중에게 다시 각광받고 있는 국악이 국악인에 의한 것이 아니라 다른 분야의 사람들의 실험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한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들 자신의 국악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다. 우리의 음악 속에서 관객은 수동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참여자로서 존재했었다. 관객의 참여는 엄연히 음악 속의 일부분이 되었던 것이다. 우리의 적극적인 모습이 있을때 우리의 아름다운 가락은 드디어 살아서 함께하는 진정한 모습이 되리라 생각한다.

신 승 대
<동양·중국어3>

□시

FBS아침방송을 들으며

이 종 순
<사범대교학과조원>

그랬었어.
젊음이라는거 하나만을 갖고
배우고, 뛰어놀고, 먹고, 마시고…
그러던 어느날 사랑을 하게 되고
그리워함에 힘들어 하고,
그보다 잊는걸 더 힘들어 하는
자네들 같이 나도 그랬었다구
하지만…
하지만 이라는 세 글자에
자네들이 생각하는 건 뭐야?
후회, 허탈, 무능력…
아니라고는 할 수 없지.
난 그런것에 쫓기며 살고 있으니까.
그렇다고 적당히 산건 아니야.
앞으로도 적당히 살고 싶진 않아.
자네들이 갖고 있는 꿈,
더 커나갈 수 있는 무한대의 기대,
자네들이 갖고 있는 만큼의 바램은 무리지만
나도 오늘을 살아나갈 수 있는 버팀목이 있어.
나의 가족, 나의 직장.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
내가 미처 중요하게 생각지 않았던
젊음은 준비도 없이 떠나보냈지만
나의 사무실에
넘쳐 흘러진 창문 밖에서
8시30분 FBS방송,
느낄수 있는 음악과 오가는 자네들의 숨결을
공감할 수 있다는 것 만으로도
난
행복하다.

정치수배 해제를 위한 시와 노래의 밤

출연/
김광석
정태춘
임종석
문성근
송시현
노래마을
수화노래팀
김명곤

사회/
임수경
이장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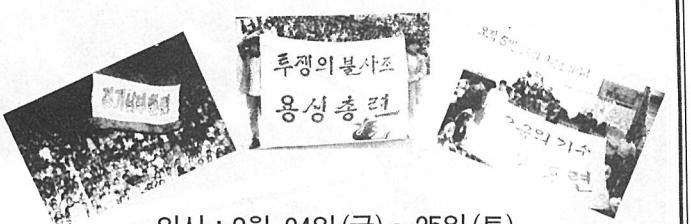
어머니 보고싶은 나의 어머니

일시 : 1993년 9월25일, 오후 5시
장소 : 한양대 올림픽체육관
주최 : 전대협 동우회

외 대 학 보

'조국' 그 아름다운 이름위에
20만청년은 '애국'을 새긴다

경기·인천지역대학 총학생회연합
건설준비 위원회 발기인대회 및 출범식



일시 : 9월 24일(금)~25일(토)
장소 : 인천대학교

경기·인천지역 대학 총학생회 연합(건)